

2023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 지역, 국가와 고등교육 경쟁력 : 전망과 과제

- 자유주제 발표 세션III -

2023. 12. 2.(토) 11:00~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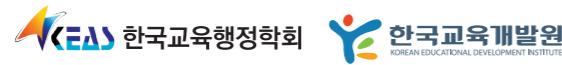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



2023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자유주제 발표 세션III

2023.12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



이 발표논문집은 2023년도 정부 자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NRF-2023S1A8A4A010890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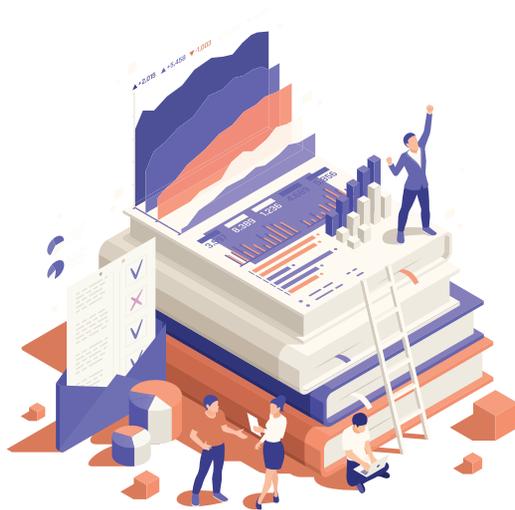
2023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 지역, 국가와 고등교육 경쟁력 : 전망과 과제

- 자유주제 발표 세션III -

2023. 12. 2.(토) 11:00~12:00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



공동주최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주관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  
한국지방교육연구소



FOUR 21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양성사업단



# 프로그램

일정		발표 및 내용	
등록		자유주제 발표 패널	
9:00 ~ 9:30		신진학자 패널	자유주제 발표 패널
1부	9:30 ~ 10:50	<p style="text-align: center;"><b>〈논문경진대회 세션 I〉</b> 201호</p> <p>좌장: 서화정(대구대)</p> <p style="text-align: center;"><b>[발표자]</b></p> <p>1. 홍희경(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2. 구지연(이화여대 석사과정) 3. 김수지(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4.곽소영(이화여대 박사과정) 외</p>	<p style="text-align: center;"><b>〈논문경진대회 세션 II〉</b> 202호</p> <p>좌장: 정재영(이화여대)</p> <p style="text-align: center;"><b>[발표자]</b></p> <p>1. 황현철(제주대 박사과정) 외 2. 유진실(충남대 석사과정) 3. 김항란(제주대 박사과정) 외 4. 황정훈(서울대 박사과정)</p>
		<p style="text-align: center;"><b>〈신진학자 위원회 세션〉</b> 101호</p> <p>좌장: 김훈호(공주대)</p> <p style="text-align: center;"><b>[발표자]</b></p> <p>1. 이영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서시연(해밀초 교사) 3. 문화원(서울대 강사) 4. 황재운(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교수) 외</p>	<p style="text-align: center;"><b>〈자유주제 발표 세션 I〉</b> 302호</p> <p>좌장: 서재영(한남대)</p> <p style="text-align: center;"><b>[발표자]</b></p> <p>1. 신현석(고려대 교수) 외 2. 이고은(서울교대 박사과정) 외 3. 배소현(한국에너지공과대 대우교수) 외</p>
		<p style="text-align: center;"><b>〈논문경진대회 세션 II〉</b> 201호</p> <p>좌장: 서화정(대구대)</p> <p style="text-align: center;"><b>[발표자]</b></p> <p>1. 김인재(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2. 장수정(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3. 김유정(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4. 강영애(이화여대 박사과정) 외</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지방교육연구소 세션〉</b> 202호</p> <p>좌장: 이슬아(한남대)</p> <p style="text-align: center;"><b>[발표자]</b></p> <p>1. 이수경(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위원) 2. 왕문혜(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위원) 3. 이호준(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위원) 4. 김용준(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원) 5. 이다현(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원)</p>
		<p style="text-align: center;"><b>〈논문경진대회 세션 III〉</b> 201호</p> <p>좌장: 서화정(대구대)</p> <p style="text-align: center;"><b>[발표자]</b></p> <p>1. 김인재(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2. 장수정(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3. 김유정(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4. 강영애(이화여대 박사과정) 외</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교육개발원 세션〉</b> 101호</p> <p>좌장: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p> <p style="text-align: center;"><b>[발표자]</b></p> <p>1. 조한상(청주대 교수) 2. 이정우(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b>[토론자]</b></p> <p>종합토론: 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1. 박관규(대한민국의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2. 김규용(충남대 교수) 3. 심우정(한남대 교수) 4. 박성욱(공주대 교수)</p>
10:50~11:00		휴식 시간	
11:00 ~ 12:00		자유주제 발표 패널	
2부		<p style="text-align: center;"><b>〈자유주제 발표 세션 I〉</b> 302호</p> <p>좌장: 차성현(전남대)</p> <p style="text-align: center;"><b>[발표자]</b></p> <p>1. 주후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 이진권(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3. 고은애(조선대 박사과정) 외</p>	<p style="text-align: center;"><b>〈자유주제 발표 세션 II〉</b> 303호</p> <p>좌장: 심현기(공주대)</p> <p style="text-align: center;"><b>[발표자]</b></p> <p>1. 민윤경(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외 2. 박선형(동국대 교수) 3. 류명혜(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b>〈자유주제 발표 세션 III〉</b> 302호</p> <p>좌장: 차성현(전남대)</p> <p style="text-align: center;"><b>[발표자]</b></p> <p>1. 주후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 이진권(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3. 고은애(조선대 박사과정) 외</p>	<p style="text-align: center;"><b>〈자유주제 발표 세션 IV〉</b> 303호</p> <p>좌장: 심현기(공주대)</p> <p style="text-align: center;"><b>[발표자]</b></p> <p>1. 민윤경(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외 2. 박선형(동국대 교수) 3. 류명혜(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위원)</p>
12:00~13:30		점심시간 및 이사회	

## 프로그램

일정	발표 및 내용	비고	
3부	13:30 ~ 13:40	개회사: 김병주 (본 학회 회장, 영남대학교 교수) 환영사: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축사: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축사: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사회자: 구성우 (신한대)
	13:40 ~ 14:20	<b>기획세션 1.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과제</b>	
	14:20 ~ 15:00	발표자: 차성현 (전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이정미 (충북대학교 교수)	좌장: 나민주 (충북대)
	14:20 ~ 15:00	<b>기획세션 2.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과제</b>	
	15:00 ~ 15:30	휴식시간	
	15:30 ~ 16:10	<b>기획세션 3.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b>	좌장: 나민주 (충북대)
	15:30 ~ 16:10	발표자: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훈호 (공주대학교 교수)	
	16:10 ~ 16:50	<b>기획세션 4.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관리 및 평가 방향</b>	좌장: 나민주 (충북대)
	16:10 ~ 16:50	발표자: 서지영 (용인대학교 교수) 토론자: 백승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소장)	
	16:50 ~ 17:30	학술대회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 좌장: 김도기 (본 학회 부회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사회자: 구성우 (신한대)
17:30 ~ 18:00	(사) 한국교육행정학회 총회 - 시상식: 논문경진대회 시상식, 소석논문상 수상, 주삼환리더십상 수상, 공로패· 송공패·학위취득기념패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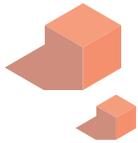
## 1부 자유주제 발표 [9:30 ~ 10:50]

### 학문후속세대 패널

#### 논문경진대회세션 I <강의실 201호>

좌장: 서화정(대구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기업가 정신 교육 개선 방안 연구: 학생 소감문 분석을 중심으로	홍희경(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엄지윤(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2	청소년의 학업과 여가시간 활용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영향요인 탐색	구지연(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3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성인문해교육 정책, 연구, 언론 부문 핵심 키워드 및 토픽 분석	김수지(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송민희(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노한나(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4	일본의 '몬스터 페어런트(monster parent)'는 누구인가?	곽소영(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김가영(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 학문후속세대 패널

#### 논문경진대회세션 II <강의실 202호>

좌장: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학령기 발달장애 양육 부모의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황현철(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오승천(제주대학교 박사과정) 홍지환(제주대학교 박사과정)
2	대학원 경험 및 연구 효능감과 연구 성과의 관계 탐색	유진설(충남대학교 석사과정)
3	NIE 지도사의 신문활용교육 지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향란(제주대학교 박사과정) 김은영(제주대학교 박사과정)
4	초등학교 남교사의 여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충 탐색: 성역할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황정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신진학자 패널

### 신진학자위원회 세션 <강의실 101호>

좌장: 김훈호(공주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대학평가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이영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교육과정 실행의 미시정치: 자율 초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사례를 바탕으로	서시연(해밀초등학교 교사)
3	학부모 학교참여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 참여 격차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	문희원(서울대학교 강사)
4	학문적 정체성 관점에서 본 학교장 리더십 국내 연구동향 분석	황재운(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자유주제 발표 패널

### 자유주제 발표 세션 I <강의실 302호>

좌장: 서재영(한남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한국 교육행정학 분야 질적 연구의 질 평가: 「교육행정학연구」를 중심으로	신현석(고려대학교 교수) 정수현(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윤혜원(서울상천초등학교 교사) 주영효(경상국립대학교 교수)
2	초등학교 교사의 예산 운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꿈실 사업을 중심으로	이고은(서울교육대학교 박사과정) 김두섭(서울교육대학교 박사과정) 오범호(서울교육대학교 교수)
3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한 소규모 이공계 대학의 강의만족도 분석	배소현(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우교수) 김지현(성신여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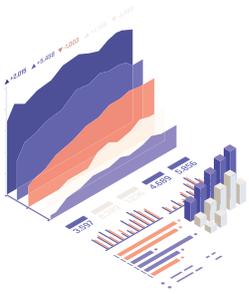


## 자유주제 발표 패널

### 자유주제 발표 세션 II <강의실 303호>

좌장: 이호준(청주교육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교육학 연구에서 무선헌당 실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활용 실태와 향후 과제	최예슬(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박소정(고려대학교 연구교수)
2	다층선형모형을 활용한 교수효능감 영향요인 탐색	유성동(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이재덕(한국교원대학교 교수)
3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초등돌봄교실정책 분석	김영빈(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이재덕(한국교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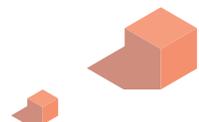
## 2부 자유주제 발표 [11:00 ~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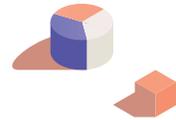
## 학문후속세대 패널

### 논문경진대회 세션 III <강의실 201호>

좌장: 서화정(대구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개정 교육과정 언론보도 분석 :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김인재(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구태진(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2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분야 교원 연수 정책 분석	장수정(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이선희(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3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모형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정책 분석	김유정(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이정민(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4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연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을 중심으로	강영애(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김건아(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 단체 및 기관 발표 패널

### 한국교육개발원 포럼 <강의실 101호>

좌장: 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 지역-대학 협력의 대전환기 고등·평생교육정책의 혁신과제

11:00~11:05	소개	KEDI연구 및 기관세션 소개 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장)
11:05~12:35	발표	지자체와 지역대학 협력의 법제도적 토대와 그 개선방향 조한상(청주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에서의 성인학습자 재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이정우(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토론 “지역-대학 협력의 대전환기 고등·평생교육정책의 주요 이슈, 개선 방향 설정”		
12:35~12:55	토론	[토론1]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토론2] 김규용(충남대학교 교수)
		[토론3] 심우정(한남대학교 교수)
		[토론4] 박상옥(공주대학교 교수)
12:55~	종합 및 폐회	

## 단체 및 기관 발표 패널

### 한국지방교육연구소 발표 세션 <강의실 202호>

좌장: 이슬아(한남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교육지원청 조직문화 혁신 촉진요인 분석	이수경(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2	지방교육에 관한 정책, 행정, 연구 동향분석	왕문혜(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수) 한은정(인천대학교 교수) 서재영(한남대학교 교수) 이슬아(한남대학교 교수) 오혜근(충북대학교 박사과정)
3	시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및 성과 비교	유호준(한국지방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4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정책 의제 동향 분석	김용준(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5	학교지원조직 유형별 조직업무, 조직구성원, 조직성과 비교 분석	이다현(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 자유주제 발표 패널

### 자유주제 발표 세션III <강의실 302호>

좌장: 차성현(전남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광역자치단체 대학지원 RISE 체계 수립의 쟁점과 과제	주희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	대학재정지원에서의 재정적 중립성(Wealth Neutrality) 검토: 정부의 대학재정지원과 재학생의 소득수준 간 관계 분석	이진권(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3	타 지역 학생들은 왜 지방 사립 C대학을 선택했나	고은애(조선대학교 박사과정) 송경오(조선대학교 교수)



## 자유주제 발표 패널

### 자유주제 발표 세션IV <강의실 303호>

좌장: 심현기(공주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의 유용성과 한계점 탐색	민윤경(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두섭(개봉초등학교 교사)
2	교육행정학의 가치기반 이론발달 탐구: 관련 쟁점과 실천 방안	박선형(동국대학교 교수)
3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탐색	류명혜(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 목 차

### [2부] 자유주제 발표 세션Ⅲ

광역자치단체 대학지원 RISE 체계 수립의 쟁점과 과제 .....1p

발표: 주휘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대학재정지원에서의 재정적 중립성(Wealth Neutrality) 검토: 정부의  
대학재정지원과 재학생의 소득수준 간 관계 분석 .....13p

발표: 이진권(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타 지역 학생들은 왜 지방 사립 C대학을 선택했나 .....35p

발표: 고은애(조선대학교 박사과정)  
송경오(조선대학교 교수)



## 자유주제 발표 세션III

# 광역자치단체 대학지원 RISE 체계 수립의 쟁점과 과제

주 최 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광역자치단체 대학 지원 RISE 체계 수립의  
쟁점과 과제

주 최 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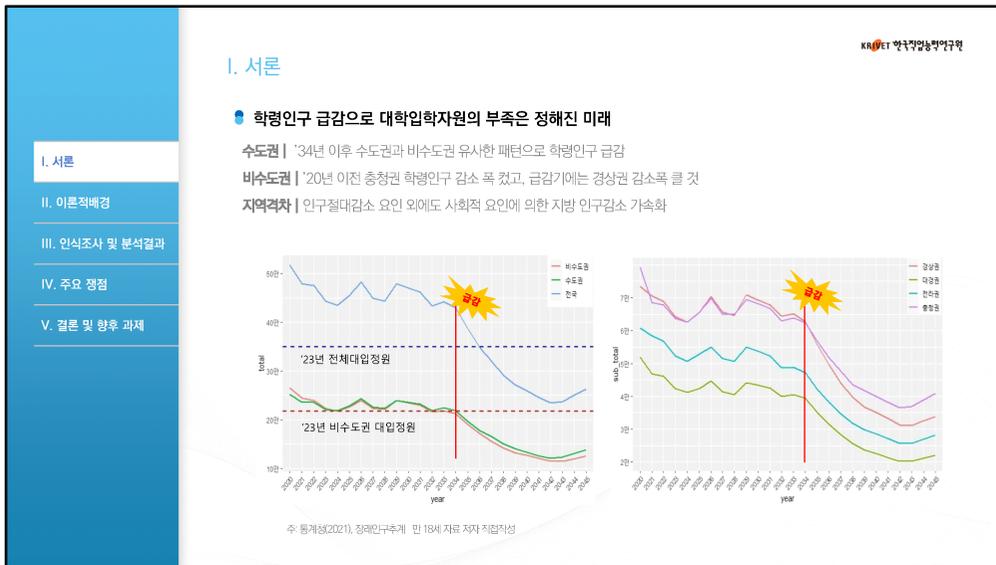
발표일시 2023. 12. 2.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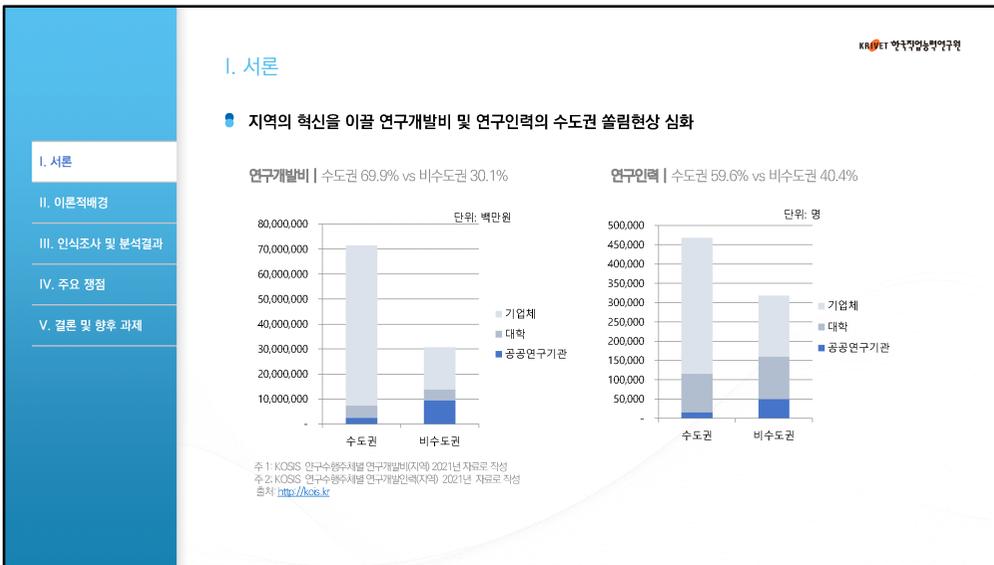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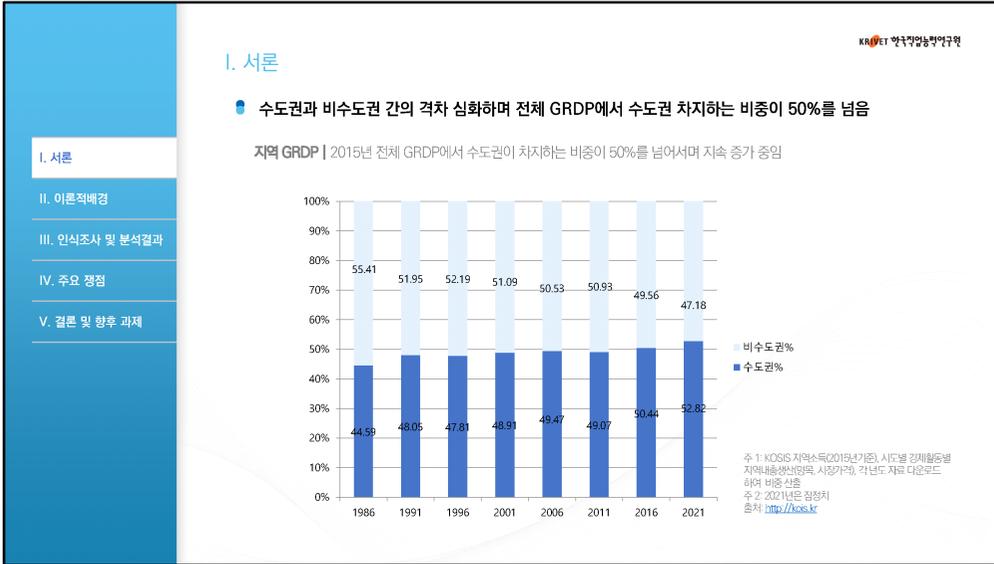
## 2 ❖ 광역자치단체 대학지원 RISE 체계 수립의 쟁점과 과제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정책변동과정 분석
  - 2. 정책산출: RISE 체계의 구조와 내용
  - 3. 분석틀
- III. 인식조사 및 분석결과
  - 1. 조사설계
  - 2. 분석결과
- IV. 주요 쟁점
- 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발표문은 주희정 외(2023), 광역자치체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모델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는 2023년 12월 발간 예정임





#### 4 ❖ 광역자치단체 대학지원 RISE 체계 수립의 쟁점과 과제

I. 서론

II. 이론적배경

III. 인식조사 및 분석결과

IV. 주요 쟁점

V. 결론 및 향후 과제

KRF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I. 서론

❖ '지방대학 시대' 고등교육의 행·재정적 권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국민의 힘 공약 | 최장사다리 교육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를 조성"  
 국정과제 선정 | 국정과제 85번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23년 업무보고 | 교육부 업무보고 "지역맞춤 규제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04 대학의 패스트 러닝 트랙으로  
신산업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고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략

- ▶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여 64년 선진국형 사립 대학 발상권과 대학지원 예산 확보
- ▶ 교육부장관(정세균)은 2022. 05. 18일 업무보고 교육 중요성 강조. 대학 경쟁력 제고(2022년 7월)
- ▶ 교육부(신) 대학혁신 시대에 대응 방안 마련. 대학의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책, 대학에 학위 교육 운영 필요

이슈

- ▶ 지방에 기반한 지역대학의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 지방의 대학들이 양수될 것은 아니다. 대학별 특성을 살리는 방안 필요
- ▶ 대학 혁신(대학) 및 교육부(신)의 대학혁신 추진 계획
- ▶ 혁신대학(신)의 Learning Track으로 신산업 분야인재 양육
- 학사 운영(신) 및 학사 운영(신)의 학사 운영(신) 등
- ▶ 대학 혁신(신)의 대학 혁신(신) 추진 계획

출처: 국민의 힘(2022), 제20대 대통령선거정책 공약집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 목적/목표

-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강화

□ 주요내용

- (지역에 관한 강령)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책 및 특우성 강화
  - 지역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으로 지원하고, 자유재, 지역대학, 지역 대학 등이 참여하는 (신)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 (지역대학 특성화사업)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위해 지역대학,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대학 특성화사업' 도입(신)
- 지자체 대학 협력사업 지원혁신을 통해 지역 대학을 국제화·세계화도인 고등교육혁신추진지역을 세우도록 정책으로 확산

출처: 국무조정실(2022), 120대 국정과제



출처: 교육부(2023), 교육부 '23 업무보고

I. 서론

II. 이론적배경

III. 인식조사 및 분석결과

IV. 주요 쟁점

V. 결론 및 향후 과제

KRF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환경변화 준비 | 학령인구감소, 지역인구 유출, 지역 쇠퇴의 악순환 고리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할 고민 필요  
 지역혁신 촉진 | 대학과 지역이 혁신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지원 체계의 모색 필요  
 지방대학 시대 |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 필요

❖ 연구의 목적

지자체 주도 |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주도로의 대학지원 체계 전환에 따른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  
 시범 RISE 체계 | '25년 본격 시행될 RISE 체계의 시범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진단  
 RISE 개선 과제 | '24년 체제 전환의 과도기를 활용한 개선 과제 발굴과 정책 제언

❖ 연구의 구성 및 절차

이론적배경 | MSF 모형을 적용한 정책변동, RISE 체계의 구조 및 내용 검토  
 설문조사&분석 | RISE 체계 도입 과정에서의 지자체 관련 집단과 대학 관계자 집단 간 인식 및 요구 비교 분석  
 주요 쟁점과 과제 | 주요 쟁점의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인식조사 및 분석결과

IV. 주요 쟁점

V. 결론 및 향후 과제

## II. 이론적 배경

### 1. 정책변동 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변동 과정 분석**

**문제의 흐름** | '21년 기점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대입 충원율 미달 가시화하고, 학생정원관리 실패에 대한 비판 증가하고, 학술다운은 지역연계를 방안으로 제시

**정책의 흐름** | 윤석열정부 출범으로 정권 교체되었으나 교육부 장관지명 지체되었고, 지선 이후 문재인 정부 추진하였던 초광역특별연합 폐기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강화로 변화

**정책의 흐름** | 지방대육성법 제정, 개정하여 교육부주도 지방대학지원사업 지속(ex. RIS)하였고, 지방비매칭을 필수화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책무 증가와 함께 권한 강화 요구 증가

문제의 흐름	
지표 변화	- 인구감소 지역지정(89개) - 지방 인구 감소 영향
사회	- 사회적 관심 증가 - 지자체 지원 필요성 형성
의사결정 변화	- 학생정원관리 강화 - 지역연계 필요성 증가

정책의 흐름	
대안	- 정치교섭에 국한된 교육부 장관지명 지체
지선	- 초광역특별연합 폐기 - 중앙지방협력회의 강화

정책의 흐름	
초기	- 지방대육성법 제(가)정 - 관련지원사업의 수립
대안	- 지자체 자체사업 실시 - 지자체 권한 강화 기조

정책의 창

국회  
고용위원회  
시·도

정책 산출

출처: 주위정 외(2023), 광역자치체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모델 연구, 중앙보고서에서 발제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인식조사 및 분석결과

IV. 주요 쟁점

V. 결론 및 향후 과제

## II. 이론적 배경

### 1. 정책변동 과정 분석

**사회적 담론에 관한 텍스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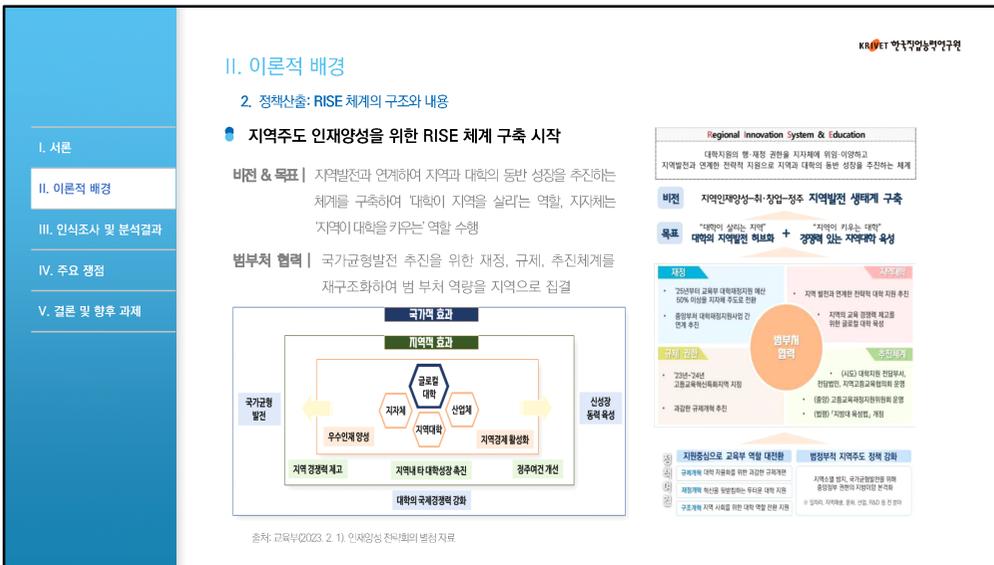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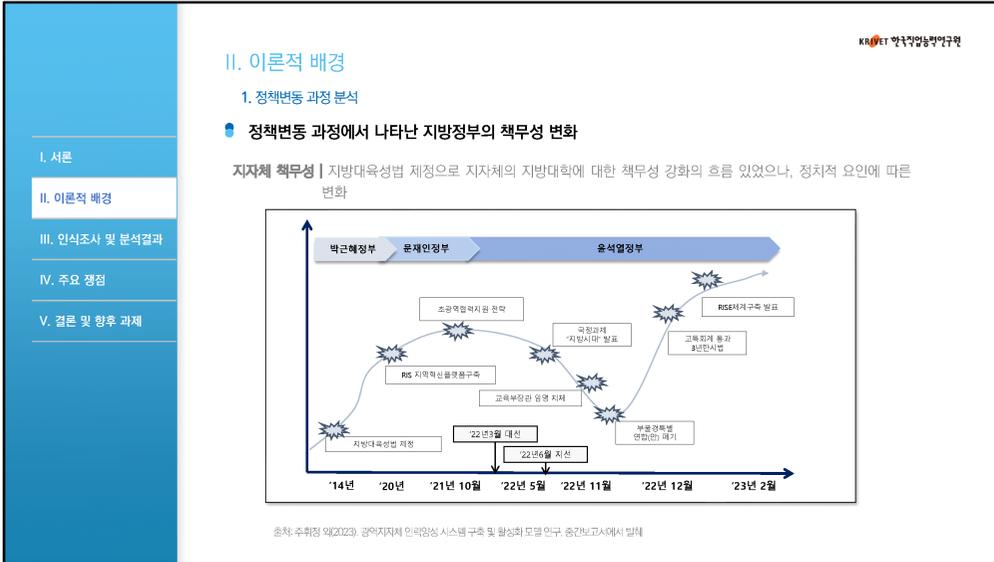
관계도 | 1위 수도권, 2위 교육부, 3위 신임생

키워드 트렌드 | '22년 7월 228건으로 가장 많음

연관어 | 1위 수도권, 2위 지역균형인재육성, 3위 교육부

주 1: 빅인포즈 뉴스분석 활용하여 작성  
출처: <http://biginfos.or.kr>

6 ❖ 광역자치단체 대학지원 RISE 체계 수립의 쟁점과 과제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인식조사 및 분석결과

IV. 주요 쟁점

V. 결론 및 향후 과제

KRI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II. 이론적 배경

### 2. 정책산출: RISE 체계의 구조와 내용

●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도입을 통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재정 기반 마련**

**지자체 주도**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강화 및 규제 해소

**재정권한 이양**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와 규모를 조정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 지자체로 이양

**글로벌대학** | 대학구조를 전면 혁신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대학을 선정, 육성

[ '23 ]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9.7조원)

연구·개발(R&D)  
+  
경상비  
+  
재정지원사업

약 5,000억원  
※ 연계예산 3,600억원 포함

➔

[ '25 ]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9.7조원 이상)

연구·개발(R&D)  
+  
경상비  
+  
재정지원사업

2조원 + Q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

➔

RISE 통합 예산

출처: 교육부(2023. 2. 1.) 인사업정 진척회의 첨부자료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인식조사 및 분석결과

IV. 주요 쟁점

V. 결론 및 향후 과제

KRI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II. 이론적 배경

### 3. 분석틀

● **분석틀**

**분석틀의 구성** |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발표연구에서는 RISE 체계 구축의 초기조건과 리더십, 협력과정, 협력성과로 구성

초기조건

법제도 시스템 기반  
이전 경험과 성과

➔

협력과정

의제 설정  
신뢰 형성  
제도 설계  
이러 공유

대면 대학

➔

협력성과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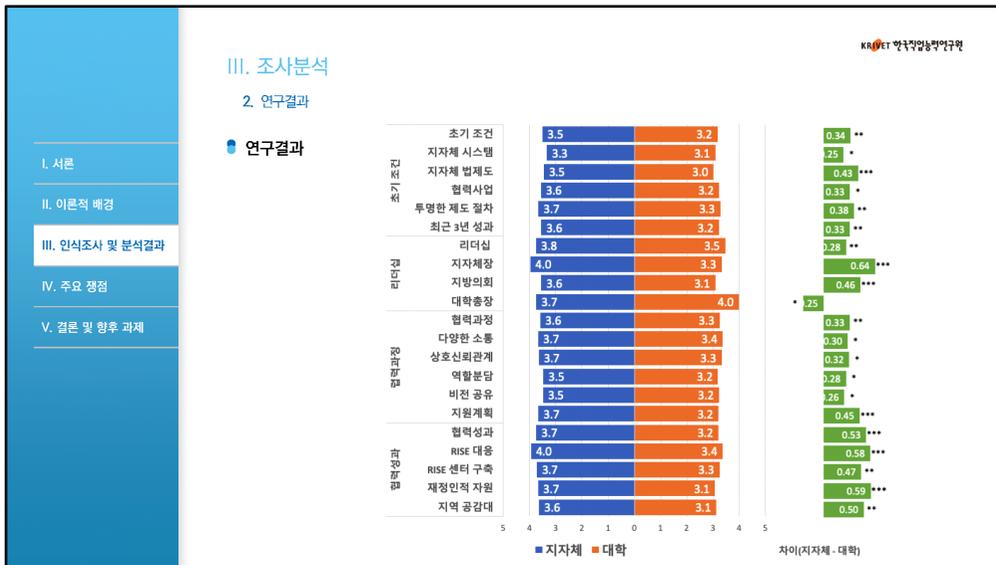
↑

(표) 선형연구에서 활용된 연구 변인

연구자	연구 변인
Ansell& Gash (2008)	- 초기조건: 권력, 자원, 지식 비대칭 - 참여 인센티브와 제약조건 - 협동과 갈등의 이원 결합(최소 신뢰수준) - 제도 설계: 참여적 포용성, 명확한 규정, 과정 투명성 - 협력과정: 대면대화, 신뢰형성, 과정수행, 이해공유, 중간결과
Emerson, Nabatchi, Balogh (2012)	- 체계적화 - 동인 - 협력의 거버넌스, 역할 - 목적과 참여, 공유동기, 공동행동력 - 행위-영향, (재)제어(역) 책임과
최명두 (2015)	- 사회적(간)구조와 사회적정치적 맥락-(지방)시민사회 - 협력과정: 참여동기, 규칙제정-신뢰구축-이해공유-성과 - 의제설정-분권화-대안모집
구혜영 (2020)	- 사회적 준비(문화적)조건: 협력필요성 인식, 상호의존성, 전문지식, 자립화가능성, 참여인센티브 - 공동체 속성: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 수준, 갈등수준, 신뢰경험, 적절한 네트워크 존재여부, 문제의식 공유 - 제도적 장치: 법적 환경, 관리제도, 감시제도, 책무성 확보, 역할분담, 명확한 경계 - 상호작용(협력과정): 동의형성, 리더십 구축, 수평적 관계, 적절한 의사소통구조, 신뢰의 구축 - 결과 및 성과: 공공의 가치달성, 성과평가, 파트너, 책용과 지속성, 국민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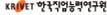
유한구 외(2022)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중 일부지 작성 부분 발췌

## 8 ❖ 광역자치단체 대학지원 RISE 체계 수립의 쟁점과 과제







I. 서론	 <h3 style="color: #0070C0;">IV. 주요 쟁점</h3> <p><b>▶ 협력과정</b></p> <p><b>소통방식</b>   지자체의 하향식 소통과 대학의 민주적 수평적 소통 방식 간의 차이로 소통 자체의 어려움</p> <p><b>상호신뢰</b>   지자체의 주도권 행사에 따른 대학의 불신 일부 존재</p> <p><b>지원계획 수립</b>   지자체 기획 주도로 대학의 개입 여지 낮고, 소통과 신뢰 미흡에 의한 갈등 소지</p> <p><b>▶ 협력성과</b></p> <p><b>재정보조</b>   RISE 체계 도입에 따른 재정 확충의 가능성 또는 대안에 대한 논의 부재</p> <p><b>재정안정성</b>   중앙정부(기존) 지원 체계와 다른 재정 안정성 확보 가능성 미약하고, 지자체 간 격차</p> <p><b>거버넌스</b>   지자체 조직 및 RISE 센터 지정, 운영하나, 중앙-지방, 지방-대학, 중앙-지방-대학 간 거버넌스 구축 미진</p> <p><b>지역공감대</b>   지역의 다양한 참여 필수적이나 대학 이외의 기관 참여를 촉진할 리더십 및 참여 인센티브 미흡</p>
II. 이론적 배경	
III. 인식조사 및 분석결과	
<b>IV. 주요 쟁점</b>	
V. 결론 및 향후과제	

I. 서론	 <h3 style="color: #0070C0;">V. 추진 과제</h3> <p><b>▶ 거버넌스</b></p> <p><b>중앙-지방</b>   17개 시도 지자체(청)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상호 대응한 관계 형성</p> <p><b>지방의회-지자체장</b>   지역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역 체계 구축</p> <p><b>지방정부-대학</b>   지역 내 대학 간 기능 및 역할 분담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p> <p><b>기타 거버넌스</b>   다양한 지역 내 혁신 기관의 참여 촉진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메타 거버넌스의 조정 역할 필요</p> <p><b>▶ 조직운영</b></p> <p><b>행정조직</b>   일반행정공무원의 교육전문역량 강화 활동, 교육개혁지원관의 지역내 역할 강화 및 파급효과 창출</p> <p><b>전담조직</b>   시범지정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법인 행정 체계로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p> <p><b>대학조직</b>   대학내부의 산발적 사업단 운영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내부 구성원의 합의</p> <p><b>▶ 재정</b></p> <p><b>재정확대</b>   지자체가 실질적 정책집행이 가능한 재정권한의 이양과 지방정부의 재정투자 책무를 위한 근거 강화</p> <p><b>재정지속</b>   5개년 RISE 계획을 넘어선 지방대학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지원</p> <p><b>기타재정</b>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민간 투자 활성화</p>
II. 이론적 배경	
III. 인식조사 및 분석결과	
IV. 주요 쟁점	
<b>V. 결론 및 향후 과제</b>	

### 참고문헌

KRIE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교육부(2023). **인재양성 전략회의**. 교육부(2023. 2. 1.).  
교육부(2023). **교육부 '23 업무보고**.  
구해영(2020).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NGO 연구*, 15(1), 43-77.  
국무조정실(2022). 120대 국정과제.  
국민의 힘(2022). 제20대 대통령선거정책 공약집.  
유한구 외(2022).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희정 외(2023). 광역지자체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모델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출판예정).  
최병두(2015). 협력적 거버넌스와 영남권 지역 발전 개념적 재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3), 427-449.

- Ansell, C. &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https://doi.org/10.1093/jopart/mum032>  
Emerson, K. Nabatchi, T., Balogh, S. (2012).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2(1), 1-29, <https://doi.org/10.1093/jopart/mur011>

빅카인즈 웹사이트: <http://bigkinds.or.kr>

통계청 웹사이트: <https://kostat.go.kr>

## 자유주제 발표 세션Ⅲ

# 대학재정지원에서의 재정적 중립성(Wealth Neutrality) 검토: 정부의 대학재정지원과 재학생의 소득수준 간 관계 분석

이 진 권(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정부재정지원의 재정적 중립성

재정적 중립성(wealth, 혹은 fiscal neutrality)은 공평성(equity) 개념의 하나로, 학생들의 교육비가 교육구(school district) 혹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이다(Odden & Picus, 2008). 이 원리는 학교의 주요 교육자원이 해당 교육구에 거주 중인 학부모의 재정적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미국의 맥락에 기초하며, Serrano v. Priest(1971)판결을 기점으로 그 논의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후 재정적 중립성은 교육재정에 있어 공평성을 논하는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게 된 바,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교육을 포함한 초·중등교육 및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 재정적 중립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다수 누적되어 왔다(반상진, 1998; 오범호, 2014; 윤홍주, 2004; 2005; 이쌍철, 주철안, 2009; 이혜진, 한유경, 2006; 조규진,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학부모의 소득수준 혹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이 단위학교나 교육지원청, 교육청 차원에서 측정한 학생들의 교육비 혹은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분야에서 재정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 학생들의 가구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연구도 사실상 충분치 않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고등교육에서 재정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과연 필요한지, 혹은 유효할지에 대해서부터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재정적 중립성을 상당 부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읽히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기초하여 개인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격차, 즉 대학교육비의 차이는 문제의 소지가 적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기초하는 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등록금 수준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비의 불평등을 문제삼는 데에는 논리적 흠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비의 재정적 중립성에 대한 검토는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지원만큼은 학부모의 소득 수준과 정적(positive)으로 관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는 충분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이 연구는 ‘대학교육비’가 아닌,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이하 ‘정부재정지원’으로 약칭함)의 재정적 중립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정부재정지원이 소수의 상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제기(대학교육연구소, 2017)와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에 있어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핵심적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문제제기(주병기, 2021)를 연계하여 고찰해보면, 정부재정지원과 재학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 간 유의미한 관련성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분명 중요한 탐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그동안의 정부재정지원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평균적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배분되었는가?”에 답하고자 한다.

1) 다만 한편으로는 재정적 중립성에서의 핵심적인 논점에 해당하는 ‘조세부담’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고소득층과, 반대로 조세 부담이 낮은 저소득층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교육비용을 환원받게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난제이다(Friedman, 1977).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논리로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재정지원액이 고소득층 자녀가 다수 재학 중인 학교에 더 많이 배분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기회의 형평 차원에서 그에 반대하는 논리도 분명 설득력을 갖는다. 재정적 중립성에서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사전’ (ex ante)의 논의, 즉 원리와 원칙에 대한 논의에 해당한다(Berne & Stiefel, 1982; Friedman, 1977). 그러나 본 연구는 ‘사전’ (ex ante)의 논의는 잠시 미뤄두고, ‘사후’ (ex post), 즉 실제적이고 관측되는 현상에 초점을 둔다. 요컨대 어떠한 원리와 원칙으로 조세부담과 교육비 환원 간의 균형을 달성해야 하는가보다는, 과연 현재의 재정적 중립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과제이다.

## 2. 정부재정지원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

재정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정부재정지원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도 관심을 둔다. 오늘날까지 많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장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다수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지원은 그 속성상 대학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영향은 교육시설, 환경, 시설, 설비, 교원 확충 등 대학의 교육적 여건은 물론, 교육과정, 학사제도 및 구조, 거버넌스 체계 등과 같은 거시환경까지도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재정지원이 대학의 실제적 측면을 뛰어넘어, 대학지원자들로 하여금 대학의 명성(reputation)을 비롯한 비가시적 선호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재정지원은 해당 대학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학이라는 신호를 대중에게 전달하게 되는 잠재적인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Diris & Ooghe, 2018).

만일 재정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신호 효과가 실제 한다면, 이는 정부재정지원이 오히려 가구 쉐어링(income sorting)을 가속화하는 축대로 작동할 염려로 확장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보면 비록 정부가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에 내재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정된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정부재정지원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소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답하는 것이다.

## II.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및 자료

이 연구는 정부재정지원과 개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평균적인 소득수준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실증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정부재정지원 관련 자료, 대학의 기본적 특성 관련 자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구소득 관련 자료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부재정지원 관련 자료는 교육부 내부자료(2003년-2010년)와 한국사학진흥재단

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대학재정알리미(2011년-2013년)를, 대학의 기본적인 특성은 대학정보공시(2008년-2013년)를 활용했다. 학생들의 가구소득 관련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이하 ‘GOMS’로 약칭함) 자료(2007년-2019년 졸업자 조사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과정에서 본교와 분교, 이원화캠퍼스는 모두 동일한 대학으로 보았다. 이는 GOMS 자료가 한국교육개발원의 분류체계를 따라 캠퍼스를 본교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 정부재정지원 관련 자료 중 교육부 내부자료의 경우 분교 자료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본 연구의 한계 중 하나이다. 분석 자료는 특정 시점에서 누락되더라도 목록별 삭제(listwise deletion)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패널은 불균형패널로 구축했다. 최종 분석의 대상은 연구문제 1의 경우 연도별 140-147개교, 연구문제 2의 경우 141개 대학의 5개년 패널로, 최종 사례수는 678개교이다.

## 2. 분석 방법 및 변수

### 가. 정부재정지원의 재정적 중립성 분석

이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은 정부재정지원을 재정적 중립성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방식의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정부재정지원액이 학생들의 가정적 배경과 무관하게 배분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재정적 중립성 수준을 검토한다. 재정적 중립성은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혹은 탄력성을 통해 측정되며(Berne & Stiefel, 1982), 본 연구에서는 대학별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과 대학 재학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다. 만일 두 변수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도출된다면, 이는 정부재정지원이 — 의도했든, 혹은 의도하지 않았든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구소득에 비례하는 방향으로 배분되었으며, 재정적 중립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정부재정지원이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의 재정적 중립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전술하였듯 수익자 부담의 논리체계 하에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등록금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적 혜택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되기에, 대학 간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부재정지원이 그러한 격차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즉 대학교육비 차이에 대해 재정적 중립성 차원에서의 형평화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정부재정지원액이 포함되었을 때와 제외되었을 때의 재학생 평균 가구소득과의 상관계수를 각각 추정한다. 만일 정부재정지원액이 포함되었을 때의 상관계수가 더 낮다면 이는 정부재정지원이 재정격차에 따른 학생교육비의 차이를 형평화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필요한 각 대학별 정부대학재정지원액은 교육부(혹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 중에서 대학에 지원되는 경상적 경비(e.g.,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등) 및 학생 개인의 소득수준과 관련되는 재정지원사업(e.g.,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등)을 제외한 재정지원액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를 대학별 재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 변수를 활용했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구소득은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변수이나, 정확한 자료를 구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가장 최선의 방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구축하고 있는 가구소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겠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서는 Pell Grant 장학금이 저소득층을 식별하는 주요 대리변수(proxy variable)이기에(Delisle, 2017) 동일한 논리로서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학생 비율의 변수화를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이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하지 않는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선책으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의 2007GOMS - 2019GOMS 자료를 활용한다. GOMS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학 재학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을 추정하는 데 적합성을 갖는다. 첫째, 여타의 패널조사와는 달리, 이 조사는 각 연도의 대학별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한 횡단면 조사로 이루어진다. 특히 GOMS에서는 조사모집단 및 추출 과정을 고려한 사후조정가중치(weight)를 제공하고 있어, 가구소득의 모평균에 대한 더욱 정확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둘째, GOMS에서는 모든 조사 연도에서 ‘입학 당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현재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최종학력’ 등 재학생들의 가정적 배경과 관련된 중요 변수들을 동일한 척도(scale)로 꾸준히 조사했다.<sup>2)</sup> 이는 서로 다른 연도별로 조사한 응답값에 대한 비교를 가능케

2) ‘입학 당시 부모님의 소득’ 응답 항목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 없음, ② 100만 원 미만, ③ 100-200만 원 미만, ④ 200-300만 원 미만, ⑤ 300-400만 원 미만, ⑥

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대학별 층화추출이 이루어진 GOMS 자료 중 ‘입학 당시의 소득’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학별로 재학생들의 입학 당시 평균 가구소득을 추정했다.

한편으로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시점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 적용하는 데 있어 GOMS 자료의 가장 큰 단점은 조사자들의 입학 시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동일 연도 입학자들만을 선별해 분석할 경우에는 모집단 대표성이 저해되며, 군 복무로 인해 졸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남성들이 대거 탈락하게 되어 여성 표본에 대한 과표집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연도별 전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들이 응답한 입학연도의 중앙값(median)을 산출하고, 해당 연도를 입학 연도로 가정했다.<sup>3)</sup> 또한 대학에 내재된 미관측 특성으로 인해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특정 대학이 존재할 수 있기에, 전체 4년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추정한 중앙값과 각 대학별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중앙값을 비교해 그 차이가 미미함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의 가구소득을 분석해야 하나, 특정한 연도의 입학 시점만을 활용할 경우 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2007년에 졸업한 코호트와 2008년에 졸업한 코호트는 동시기에 재학했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른 시기에 입학한 재학생들과의 동시 재학 시기 및 분석 자료 가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t-2시점까지를 포함한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해 대학별 재학생들의 평균 가구소득, 즉 이동평균(moving mean)을 산출했다.

## 나. 정부재정지원과 대학 신입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 간의 관계 분석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정부재정지원이 당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보

---

400-500만 원 미만, ⑦ 500-700만 원 미만, ⑧ 700-1,000만 원 미만, ⑨ 1,000만 원 이상 이 문항은 ⑦, ⑧, ⑨ 선지로 인해 동간척도(interval scale)가 아닌 서열척도(ordinal scale)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해당 항목은 상대적 높고 낮음의 의미로만 해석하였다. 서열척도로 해석할 경우의 이점은 이에 대해 별도의 물가조정(inflate 혹은 deflate)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3) 평균(mean)이 아닌 중앙값(median)을 활용한 것은 입학 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졸업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집중경향치의 과소추정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는, 즉 대학 신입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는 대학 신입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을, 설명변수로는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 및 그 외 통제변수를 투입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했으며, 미관측 이질성에 의한 잠재적 영향력을 충분히 통제하기 위해 시간과 개체 특성을 고정한 패널 이원고정효과모형(panel 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고려했다.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INCOME_{i,t} = \beta_1 + \beta_2 FUNDING_{i,t-1} + \beta_3 D_{i,t} + \beta_4 E_{i,t-1} + \mu_i + v_t + \epsilon_{i,t}$$

여기서  $INCOME_{i,t}$ 는  $t$  시점에 대학  $i$ 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을 나타낸다.  $FUNDING_{i,t-1}$ 은 개별 대학  $i$ 에 대한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이며, 1년의 시차(time lag)를 적용하였다. 이는 정부재정지원으로 인한 종속변수에의 영향이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 해에 포착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D_{i,t-1}$ 은 대학 신입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학 차원의 특성을,  $E_{i,t}$ 는 종속변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당해 연도 입학생들의 평균적인 특성 변수의 벡터를 각각 의미한다.  $\mu_i$ 는 대학  $i$ 의 관측되지 않은 고유 특성이며,  $v_t$ 는 각 연도별 고정효과,  $\epsilon_{i,t}$ 는 오차항이다.

위 모형에서 통제변수  $D_{i,t-1}$ 와  $E_{i,t}$ 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과연 대학 차원에서 재학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아도 이를 직접적으로 탐구한 국내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추론컨대, 높은 선호의 대상이 되는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입학하게 될 것인 바, 학생들의 가구소득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해 보자면, 개별 대학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학생들의 입학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 및 그 외에 신입생의 평균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탐색적으로 선정하여 포함시켰다.

먼저 재학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되는 변수로는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과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통한 입학생의 비율, 학자금대출 이용학생 비율을 통제변수로 투입했다. 특히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통한 입학생 비율과 학자금대출 이용학생 비율은 당해 연도 재학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지연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유인이 있으므로, 그러한 전략이 종속변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관련된 변수로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장학금, 기숙사 수용률을 통제했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명성 및 그로 인한 선호와 관계된 특성으로서 대학입학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통제변수로 투입했다. 또한 대학이 산출하는 교육적·학문적 성과도 우수한 신입생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적 성과로서 취업률, 중도탈락률과 연구 성과로서 KCI급 및 SCI급 논문 수를 통제하였다.<sup>4)</sup>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학생들의 가구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수, 즉 부모의 최종학력 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했다.<sup>5)</sup> 이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변수

구분	변수명	자료 출처
종속변수	신입생 부모의 평균 가구소득	GOMS
	신입생 부모의 평균 학력	GOMS
관심변수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	교육부 내부자료, 대학재정알리미
통제변수	대학 규모*	대학정보공시

4)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 변수(예컨대 일반고등학교 출신 학생 비율 등) 또한 가구소득과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통제가 필요하나,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이 2010년부터 이루어진 관계로 분석 샘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제외했다. 일반고등학교 출신 학생 비율을 포함해 분석한 결과 또한 후술하는 <표 4>, <표 5>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당 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5) 부모의 최종학력 변수는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 등으로 구성된 서열척도이며, 양친의 최종학력 응답값의 평균을 산출해 분석에 활용했다. 부모의 최종학력과 신입생 평균 가구소득 간 상관계수는 최종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r=0.5789$ 에 달했다.

구분	변수명	자료 출처
	대학 평균 등록금*	대학정보공시
	기회균형선발전형 입학생 비율†	대학정보공시
	학자금대출 이용학생 비율†	대학정보공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장학금*	대학정보공시
	기숙사 수용률	대학정보공시
	대학입학 경쟁률	대학정보공시
	신입생 충원율	대학정보공시
	외국인 유학생 비율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대학정보공시
	중도탈락률	대학정보공시
	교원 1인당 KCI급 논문 수	대학정보공시
	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수	대학정보공시

주) \* 표시 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함

† 표시 변수는 통제변수 중 시간지연을 적용하지 않은 변수를 의미함

### 3. 연구의 한계

이 연구에서는 구득이 어려운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 있었으나, 그러한 노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몇 가지 한계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재학생의 가구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활용한 GOMS 자료의 목표모집단은 ‘졸업자’이며, 이들을 통해 추정한 입학 시점은 정확하지 않다. 앞서 이들이 재학하는 시점의 평균적인 가구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여러 가정을 덧붙였으나,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본래적 한계가 엄존한다. 결국 입학시점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바, 특히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실제값과 거리가 있는 영향관계의 추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둘째, GOMS 자료는 졸업자 중 해외취업, 해외유학,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바(한국고용정보원, 2022), 만

일 특정 대학의 해외취업 및 해외유학자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대학별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과소추정(underestimate)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의 연도별 해외취업 및 해외유학자 비율 자료를 확보해 통계적 처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졸업자 취업 관련 통계의 수집은 2008년 이후에서야 시작되었고, 학과 단위의 정확한 매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해 보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이 어려워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직관적으로 고려해보자면 해외취업 및 해외유학은 일반적으로 소위 ‘상위권 대학’에서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할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 추정한 재정적 중립성의 수준은 실제에 비해 더 높게 추정된 것으로(즉, 실제 재정적 중립성은 덜 확보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정부재정지원은 2001~2013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와 현재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분석의 결과를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진행될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형태로 일반화할 수 없다.

넷째,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본교와 분교, 이원화캠퍼스를 모두 동일한 대학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수행했다. 그러나 동일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분교 혹은 이원화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과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간 가구소득이 동질적일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 이들 대학 간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인해 분석 결과에 어떤 편향이 발생했을지는 선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추후 더욱 정확한 추정을 위해 본교와 분교, 이원화캠퍼스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 Ⅲ. 연구 결과

#### 1. 기초통계량: 대학생들의 평균 가구소득 격차

본 분석에 앞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 중 대학생들의 평균 가구소득과 관련된 주요 통계치를 살펴본다. 아래 <표 2>와 [그림 1]은 연도별 대학생 평균 가구소득의 기초통계량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평균 가구소득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의 좌측은 단년도 자료로서 신입생 가구소득을, 우측은 직전 2개년도 자료를 포함해 산출한 이동평균으로서 재학생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 통계량 산출 대상은 모든 연도의 자료가 존재하는 대학으로 한정했다.<sup>6)</sup>

<표 2> 대학생 평균 가구소득 기초통계량 (n=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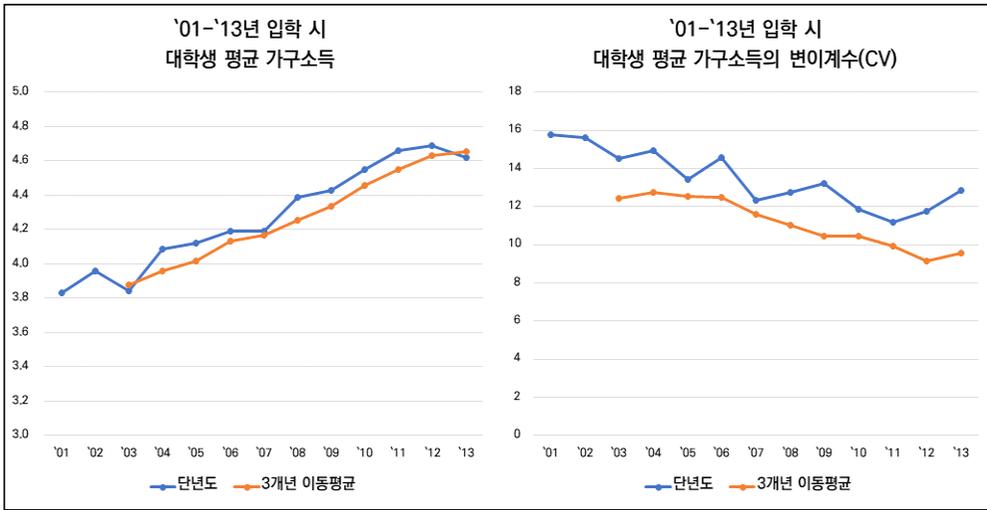
연도	단년도 평균 (신입생 가구소득)					직전 2개년도 자료 포함 (이동평균, 재학생 가구소득)				
	min	max	mean	sd	CV(%)	min	max	mean	sd	CV(%)
2001년	0.000	5.818	3.829	0.603	15.80	-	-	-	-	-
2002년	1.072	5.536	3.957	0.616	15.61	-	-	-	-	-
2003년	1.750	5.739	3.840	0.555	14.51	2.206	5.173	3.875	0.480	12.42
2004년	1.000	5.314	4.086	0.608	14.93	2.024	5.146	3.961	0.504	12.75
2005년	1.500	5.671	4.120	0.551	13.41	2.167	5.139	4.016	0.502	12.53
2006년	2.000	6.000	4.189	0.608	14.56	2.000	5.212	4.132	0.514	12.47
2007년	2.667	5.342	4.193	0.515	12.33	2.556	5.203	4.167	0.481	11.58
2008년	1.500	5.373	4.388	0.557	12.74	2.636	5.267	4.257	0.467	11.01
2009년	1.897	6.000	4.431	0.583	13.20	2.619	5.320	4.337	0.453	10.47
2010년	2.316	5.758	4.551	0.539	11.88	2.644	5.376	4.457	0.465	10.46
2011년	2.059	5.863	4.662	0.520	11.19	2.991	5.397	4.548	0.450	9.92
2012년	2.408	6.183	4.689	0.550	11.76	3.326	5.483	4.634	0.423	9.17
2013년	2.000	5.841	4.620	0.592	12.86	2.899	5.532	4.657	0.444	9.57

주) 연도는 각 횡단면 조사 코호트별로 산출된 평균적인 입학 시점(t-6)을 의미함.

\*p<.10, \*\*p<.05, \*\*\*p<.01

대학생 평균 가구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01년 신입생 평균 가구소득은 3.829로, 설문 척도를 기준으로 보면 ‘200-300만 원 미만’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2013년에는 평균값이 4.620에 달해, ‘300-400만 원 미만’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실제적인 가구소득 증가, 혹은 물가상승률의 영향 등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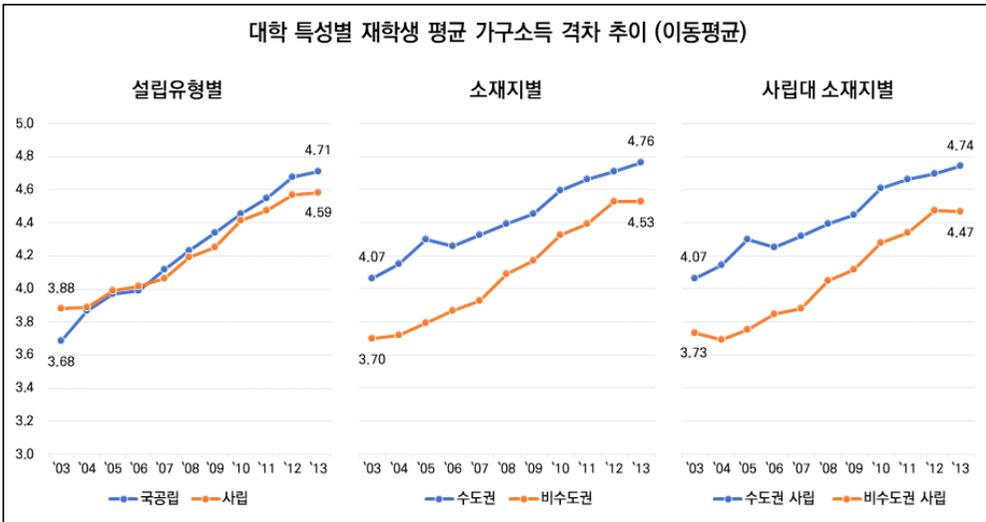
6) GOMS의 전체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을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1] 2001-2013년 입학 시점 기준 대학생 평균 가구소득 및 변이계수

이 연구의 주요 관심은 대학생들의 가구소득 자체보다는 가구소득의 대학 간 차이에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한 변이계수는 평균값에 대한 상대적 변동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입생과 재학생 자료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인다. 신입생 자료의 경우 2001년 입학 시점에서는 15.80%였으나, 2013년에는 12.86%로 감소하였고, 재학생 또한 2003년에는 12.42%에서 2013년 9.57%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 의외이나, 대학교육에의 접근성이 증대되고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대학입학자들의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상향평준화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본다.

가구소득의 격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학의 특성(설립유형, 소재지)에 따른 재학생 평균 가구소득 격차 추이를 분석해보면 [그림 2]와 같다. 설립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2003년 기준 사립대학은 3.88, 국공립대학은 3.68이었으나, 2004-2007년을 거쳐 역전하여 2013년에는 국공립대학이 4.71, 사립대학이 4.59로 국공립대학 재학생 평균 가구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연 국공립대학 본연의 책무,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장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공립대학의 중요한 책무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남수경 외, 2018).



[그림 2] 2003-2013년 대학 특성별 재학생 평균 가구소득 격차 추이(이동평균)

또한 소재지별로는 2013년 기준 수도권 대학 평균은 4.76, 비수도권 대학은 4.53으로 설립유형에 비해 더 큰 차이를 보였고, 사립대학의 소재지에 따라서는 수도권 사립 4.74, 비수도권 사립 4.47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 지표들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정책적 방향으로, 지역대학에의 집중적 투자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 2. 정부재정지원의 재정적 중립성 분석

다음으로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각 연도별로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액과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구소득 간 관계를 검토하였다. 아래 <표 3>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재학생의 평균 가구소득과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 및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액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각각 산출하였다.

재학생 평균 가구소득과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분석 대상 기간 중 가장 오래된 시점인 2003년의 상관계수는  $r=0.0137$ 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2004년  $r=0.3740$ 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5년과 2006년 다소 감소했다가 2007년에는 다시  $r=0.4583$ 으로 증가했다. 이후 2008년부

터 2013년까지는 0.2~0.3 수준을 보였다. 재정적 중립성 분석과 관련한 상관계수의 해석에 있어 0.5를 기준으로 삼아 그 미만일 경우 재정적 중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Odden & Picus, 2008),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상관계수의 크기 그대로를 해석한다. 예컨대 상관계수가 0.2로 산출되고 유의하다면, 이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변량에 대해 4%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을 취하는 이유는 본 연구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부재정지원의 특성상 재정적 중립성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켜야 할 당위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면, 정부재정지원액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구소득에 어느 정도 비례하여 배분되었으며, 따라서 재정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표 3> 정부재정지원의 재정적 중립성 분석 결과

연도	Max no. of Obs	재학생 평균 가구소득과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 간 상관계수	재학생 평균 가구소득과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 간 상관계수	
			정부재정지원액 포함	정부재정지원액 제외
2003년	145	0.0137	-	-
2004년	147	0.3740***	-	-
2005년	144	0.1478*	-	-
2006년	146	0.1131	-	-
2007년	146	0.4583***	-	-
2008년	146	0.2320***	0.4729***	0.4598***
2009년	147	0.3790***	0.4614***	0.4605***
2010년	146	0.2934***	0.5088***	0.5098***
2011년	146	0.2360***	0.5581***	0.5578***
2012년	145	0.2904***	0.4290***	0.4312***
2013년	140	0.2239***	0.5469***	0.5432***

주) 1. 연도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함.

2. 정부재정지원액은 교육부 내부자료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는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p<.10, \*\*p<.05, \*\*\*p<.01

재정적 중립성의 시계열 흐름에서는 한 가지 특징적인 지점이 발견되는데, 상관계수가 일정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등락을 보인다는 것이다. 고찰하건대, 이는 정부재정지원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훈호(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재정지원은 2003년까지는 “평가기반 차등지원 제도의 도입 및 확대” 시기이고, 2004-2007년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 전면 실시” 시기이며, 2008년부터는 “포퓰러 펀딩 방식의 도입 및 확대” 시기에 해당한다. 즉, 2004년부터 본격적인 우수 대학으로의 ‘선택과 집중’ 재정지원이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수혜를 더 많이 얻었으며, 그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은 그 외의 대학 재학생들에 비해 높을 개연성이 있다. 반면 2008년부터 교육여건지표 등에 기초한 포퓰러 펀딩의 도입은 기존의 이러한 연관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했을 것이기에 상관계수 또한 상당 수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재정적 중립성은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표 3>의 우측에 제시된 재학생 평균 가구소득과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자. 정부재정지원액을 포함한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와의 상관계수는 대체로 0.4~0.5 내외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대학에 따라서 교육적 여건과 교육내용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정부재정지원은 그러한 차이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수행했는가? <표 3>의 가장 우측 열에는 정부재정지원이 제외되었을 때의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정부재정지원이 포함되었을 때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음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을 제외한다면, 그동안 이루어진 정부재정지원의 재정형평화 기능도 사실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sup>7)</sup>

7) 이 분석에서 재정형평화 혹은 교육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은 제외되었음에 유념해야 하며, 따라서 위 분석 결과만으로 교육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이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정책들이 유효했다는 연구(e.g., 이호준, 양민석, 김영식, 2014)와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e.g., 양정승, 2018)가 공존하는 바,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여 정도를 심도 깊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 3. 정부재정지원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분석

#### : 정부재정지원이 신입생들의 평균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다음으로 정부재정지원이 신입생들의 평균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모두 추정하여 Hausman test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이 지지되었으나, 두 모형의 분석 결과를 모두 제시하고 보완적으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이 1% 증가하면, 9점 척도로 측정한 재학생 평균 소득이 0.0263 증가함을 의미하며, 결국 정부재정지원이 일종의 잠재적 신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표 4> 정부재정지원과 신입생 부모의 평균 가구소득 간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신입생 부모의 평균 가구소득			
	(1) 고정효과		(2) 확률효과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	0.0263**	(0.0129)	0.0358***	(0.0108)
대학 규모	0.0383	(0.2525)	-0.0131	(0.0357)
대학 평균 등록금	0.1742	(0.4203)	0.4370***	(0.1061)
기회균형선발전형 입학생 비율	-0.0344***	(0.0123)	-0.0290***	(0.0094)
학자금대출 이용학생 비율	0.0005	(0.0050)	-0.0087**	(0.0040)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0.0071	(0.0085)	-0.0038	(0.0034)
학생 1인당 장학금	-0.1385	(0.1254)	-0.1128	(0.0878)
기숙사 수용률	0.0008	(0.0035)	-0.0044***	(0.0014)
대학입학 경쟁률	0.0112	(0.0089)	0.0141***	(0.0049)
신입생 충원율	0.0011	(0.0046)	0.0020	(0.0032)
외국인 유학생 비율	-0.0288***	(0.0078)	-0.0065	(0.0051)
취업률	-0.3070	(0.2948)	-0.0323	(0.2192)
중도탈락률	0.0093	(0.0183)	-0.0445***	(0.0115)
교원 1인당 KCI급 논문 수	0.1448	(0.1662)	0.2873***	(0.1043)
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수	-0.0434	(0.4137)	0.0435	(0.1872)

	종속변수: 신입생 부모의 평균 가구소득			
	(1) 고정효과		(2) 확률효과	
Constant	3.4242	(6.9476)	-0.8085	(1.5384)
Observations	678		678	
R-squared(within)	0.1230		0.0837	
Number of id	144		144	

- 주) 1. \*\*\*p<.01, \*\*p<.05, \*p<.10  
 2.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나 연도 더미의 회귀계수는 생략함.  
 3.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냄

그밖에 통제변수 중에서는 대학의 평균 등록금, 기회균형선발전형 입학생 비율, 학자금대출 이용학생 비율, 기숙사 수용률, 대학입학 경쟁률, 외국인 유학생 비율, 중도탈락률, 교원 1인당 KCI급 논문 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평균 등록금으로 인한 입학 의도는 가구소득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이며,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통한 입학생 비율과 학자금대출 이용학생 비율은 가구소득과 직접적 영향관계를 맺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높은 기숙사 수용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와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기에 가구소득에 따른 선호와 관계될 수 있다. 대학입학 경쟁률은 우수한 대학에 대한 선호를 표상하며, 중도탈락률과 교원 1인당 KCI급 논문 수는 대학의 교육적·학문적 성과를 나타내기에 입학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고정효과모형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부적(negative) 영향을 보인 점은 다소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입학선호의 열위에 있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증가시켜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높거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입학 선호가 평균적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불분명한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부모의 최종학력 변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한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부모의 최종학력과 가구소득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완전하게 동일한 변수는 아니며, 그럼에도 두 변수 모두 자녀의 대학진학에 깊게 관여된다. 따라서 두 변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해 분석한 결과는 유사하게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lt;표 5&gt; 정부재정지원과 신입생 부모의 평균 학력 간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신입생 부모의 평균 최종학력			
	(1) 고정효과		(2) 확률효과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	0.0134*	(0.0069)	0.0243***	(0.0066)
Constant	6.6322*	(3.6973)	0.8919	(1.1387)
Observations	678		678	
R-squared(within)	0.1926		0.1197	
Number of id	144		144	

주) 1. \*\*\*p<.01, \*\*p<.05, \*p<.10

2. 연도고정효과와 기타 통제변수의 회귀계수는 생략함.

3.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냄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의 증가는 차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 학부모의 최종학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재정지원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가구소득과 부모 학력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쏠림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정부재정지원의 재정적 중립성을 검토하고, 정부재정지원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서 신입생 가구소득에 대해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별 재학생들의 평균 가구소득 관련 통계를 검토하였고, 정부재정지원과 대학 재학생들의 평균 가구소득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재정적 중립성을 평가했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이 차년도 신입생 평균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패널분석을 수행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재학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라 가구소득의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대학에,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평균적인 가구소득이 더 높고, 사립대학 중에서도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평균 가구소득이 더 높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도권 4년제 대학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더 큰 비중으로 재학할 것이라는 김진영, 이정미

(2015)의 추정을 뒷받침한다. 다만 대학 간 재학생 평균소득의 격차는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은 재학생들의 가구소득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재정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이는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에 정부의 공적 재정이 더 많이 지원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학교육비의 차원에서 재정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적어도 공적인 재정지원이 학생들의 가구소득과 관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정부재정지원의 재정적 중립성 수준은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포물러 펀딩이 도입된 시기에서도 재정적 중립성이 완전하게 확보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의 도입된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등의 포물러가 오로지 학생 수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포함해 구성(김훈호, 2014: 63)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상대적으로 양호한 교육적 여건을 갖추거나 우수한 성취를 달성하는 대학에 대해 더 많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차등적 지급 요소가 학생들의 가구소득과 관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포물러 펀딩에 있어서도 재정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장치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정부재정지원은 대학 간 가구소득의 격차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정부로부터 수혜받는 재정지원이 일종의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 재학생 가구소득을 차등화하는,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순환적 관계는 재정적 중립성의 훼손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설계에 있어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현재의 정부재정지원이 대학생 중에서도 특정한 사회경제적 계층, 예컨대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자녀 등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나, 그러한 지원은 대학 차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질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대학혁신 지원사업, 지방대 활성화사업 등과 같은 포물러 재정지원의 경우에도,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의 여건지표를 도입하고 있

는 바(교육부, 2023.3.), 이러한 지표가 정부재정지원액의 재정적 중립성에 미칠 영향도 과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표들이 재학생들의 가구소득과 갖는 관련성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학생 수 혹은 비율을 재원배분 포물러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보다 직접적인 보완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23.3.).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수정안). 세종: 교육부.
- 김진영, 이정미. (2015). 대학생 학자금 지원의 성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4(3), 65-88.
- 김훈호. (2014). 대학 재정지원 정책과 대학의 재정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대학교육연구소. (2017).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4 - 대학재정지원 평가와 발전과제. 서울: 박경미의원실.
- 반상진. (1998). 교육재정의 공평성 평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6(1), 199-231.
- 양정승. (2018). 정부의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노동정책연구, 18(1), 103-133.
- 오범호. (2014). 특수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 한국초등교육, 25(4), 185-200.
- 윤홍주. (2004).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2), 307-326.
- 윤홍주. (2005). 초등학교 학교회계의 공평성 분석: 강원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18(1), 109-132.
- 이쌍철, 주철안. (2009). 교육경비보조금의 공평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7(1), 149-170.
- 이혜진, 한유경. (2006). 서울시 공립 초·중학교 교육비의 공평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67-94.
- 이호준, 양민석, 김영식. (2014). 장학금 지원 정책의 변화가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3), 27-52.
- 조규진. (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정배분의 공평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4), 409-435.

주병기. (2021).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 조세재정 브리프, 118, 1-8.

한국고용정보원. (200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USER GUIDE (2007GOMS ~ 2019GOMS).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Berne, R. (1988). Equity issues in school finance. *Journal of Education Finance*, 14(2), 159-180.

Berne, R., & Stiefel, L. (1982). Alternative measures of wealth neutrality.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4(1), 5-20.

Delisle, J. (2017). The Pell Grant proxy: A ubiquitous but flawed measure of low-income student enrollment. *Evidence Speaks Reports*, 2(26), 1-12.

Diris, R., & Ooghe, E. (2018). The economics of financing higher education. *Economic Policy*, 33(94), 265-314.

Friedman, L. S. (1977). The ambiguity of serrano: two concepts of wealth neutrality. *Hastings Constitutional Law Quarterly*, 4(3), 487-504.

Odden, A. R., & Picus, L. (2008). *School finance: A policy perspective*. McGraw-Hill.



## 자유주제 발표 세션Ⅲ

# 타 지역 학생들은 왜 지방 사립 C대학을 선택했나

고 은 애(조선대학교 박사과정)

송 경 오(조선대학교 교수)

### I. 서론

2023년 8월에 발표한 통계청 6월 인구동향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2분기 출생아 수가 0.70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저조한 출산율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곧 국내 대학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2022)은 2020년을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195만 명의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2021)는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약 20년 후에는 현재 대학의 절반이 사라지며, 지방대학은 현재의 44.1%만 남고 사라질 것으로 보고하였다. 현재에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지역별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알리미에 의하면 2021년 신입생 미충원 인원 3만 명 중 75%가 지방대학의 미충원 인원이었다(중앙일보, 2022.9.21.).

신입생의 대학 선택 시 출신 지역과 근접한 생활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안영진, 2004), 지방대학의 신입생 대부분이 주변 지역 학생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방의 인구감소 시 미충원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지역적·문화적으로 비슷한 학생들과 주로 대학 생활을 하게 될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학 시절은 학습, 동기부여, 시민의식 형성의 중요한 시기이므로 다양한 사람과의 의견을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 생활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습득한 다양성과 관련한 학습은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고와 복합적인 인지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Gurin, Dey, Hurtado, & Gurin, 2002; 이효선, 2014 재인용). 해외에서는 대학 내 다양성 경험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다양성 경험은 비판적 사고, 시민의식, 독해 능력 태도, 민주적 행동의식, 개인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도 대학 내 인적 구성의 다양성 연구와 효과에 관하여 보고되고 있다(이인서, 2018). 이주이(2018)는 타 지역 출신 학생 유입은 대학 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이끌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고차원 학습에 정적인 영향과 반성적 학습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민영, 양윤재, 윤태웅, 김지형(2022)의 연구에서도 대학 생활 중에 다양한 사람과 교류와 여러 활동에 협업하려는 경향이 높을수록 공동체 조직에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효선(2014)은 구성원의 다양성이 긍정적 효과를 구현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대학에서 신입생의 다양성 확보에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지방대학이 신입생 미충원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생의 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입생이 특정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학선택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입생은 대학 선택 시 학업성적(손준중, 2002; 최수영, 2007), 원하는 전공(하봉준, 2000; 임동현, 2009), 취업률(박종무, 전채남, 권미옥, 2004; 손명숙, 2012; 김경은, 2016; 김태선 외, 2022)을 고려하였다. 학과선택요인 선행연구는 주로 예체능, 항공 서비스학, 보건계열 등 특수성이 높은 학과로 수행되었는데, 예체능계열은 흥미와 적성(이중희, 2013; 홍창기, 2019), 항공 서비스학은 사회적인 동기(손승희, 양정미, 최종률, 2013; 양정미, 2019; 이진희, 2022), 보건계열은 취업률(김진수, 임근옥, 2006; 유지수, 2009; 여진동, 김혜숙, 고인호, 2012; 장계원, 이지영, 정미경, 2013; 이미림, 이효철, 2018)을 이유로 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입생이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한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지만, 주로 거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특정 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누구인지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거나, 계열별 개인적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대학과 학과선택은 학생을 둘러싼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변화된다(임동현, 2009). 따라서 학과선택 시 학생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학 내 학생의 다양한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과 선택요인을 파악하지 못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지방 C대학에 입학한 타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특정 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 C대학의 신입생은 호남권 출신이 90%를 차지하지만, 특정 학과의 경우 전국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이 꾸준히 입학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신입생들이 지방대학 특정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 C대학을 사례로 최근 3년간 타 지역 입학생 비율이 높은 학과를 대상으로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방사립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사립대학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과 정부가 대학의 미충원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C대학 특정학과를 선택한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은 누구인가?

둘째, 이들이 지방 C대학 특정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입학자원 모집과 지방대학의 위기

지난 20년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으로 약 17만 2천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2021년 전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였고, 미충원 인원은 주로 지방대학에 집중되었다(교육부, 2021). 실제 1990년대부터 고등교육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진학인구도 줄어들 것이라며 미충원 문제를 제기해왔다(대학교육연구소, 2021), 실제로 2000년 82.7만 명이었던 학령인구가 2005년 60.9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교육부, 2021). 문제는 출생률이 급감한 2016년생이 입학하는 2035년 이후부터이다. 2000년 64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6년 40.6만 명, 2020년에는 27.2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대학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16년생 입학하는 2035년에

는 이전의 미충원 결과와 비교할 수 없는 신입생 미달이 예상된다(대학교육연구소, 2020).

지방대학의 입학자원 모집 위기는 권역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기준(2019)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학령인구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18년 학생 수 대비 2045년까지의 권역별 학령인구가 약 17.6% 감소 되는데, 수도권은 약 15% 감소함에 반해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광주는 20%가 넘는 학령인구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근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부산의 지역 대학이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임금체불사태 기사(부산일보, 2023.8.7.)와 같이, 지방대학의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는 교육여건의 후퇴와 교직원의 임금체납 등의 문제로 위기가 악화 될 수 있다(대학교육연구소, 2020).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하여 배경진(2022)은 대학 간 서열구조와 이로 인한 입시환경의 변화를 그 이유로 들었다. 손준종(2002)은 대학이 지위재(position goods) 성격을 지니고 있어 위계적으로 서열구조가 낮은 대학은 주로 지방사립대학이며, 학생 선택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서열구조로 인한 지방대학은 지역의 우수 고교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백분위 4% 이내 입학자의 68.8%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였고, 지방은 31.2%에 머물렀다(임승달, 2004). 안기돈, 오정일(2010)의 연구에서도 중소 도시의 학생은 지역 대학진학을 꺼리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서울의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큰 변화가 없다. 박성신 외(2022)는 지방의 상위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학 선호 현황 조사한 결과 약 68.8%의 학생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였다. 또한, 안영진(2004)은 사회적 인지도가 좋은 대학은 광역적 취학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지 못한 대학은 주로 대학 소재지에 인접한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방대학은 비교적 낮은 사회적 인지도로 소재지 주변의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의 서열구조로 인한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은 결국 지역의 인재 유출로 이어져 지방대학의 우수한 학생선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대학 내 다양한 학생 구성의 중요성

현재 사회는 다양성의 시대이다. 다양한 인종, 국적, 성별, 소수집단의 여러 특징을 가진 구성원과 함께 교류하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미래의 사회에 만날 다양한 구성원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교육기관에서의 다양성 경험과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제화 시대의 도래로 기업과 학교 현장에서 인종, 문화, 그리고 사고의 다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Webber & Donahue, 2001; 정하연, 2018 재인용).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문적 지식을 가르치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사회적 인 능력과 전략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Brown & Duguid, 1996; 이효선 외, 2016 재인용).

대학 내 다양한 학생 구성의 중요성을 여러 학자가 강조해왔는데, 김재춘(2000)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임을 제시하며 다양성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Gurin et al.(2002; 이인서, 2018 재인용)은 대학 내 다양한 인종, 문화적 배경 등을 가진 구성원의 조합을 구조적 다양성이라 정의하며 다양한 학생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Hurtado 등(1998; 이효선, 2014 재인용)은 대학 내 다양성 경험을 구조적 다양성, 강의실 내의 다양성, 무 형식적 상호관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구조적 다양성은 캠퍼스 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재학생 구성으로 대학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하며 학습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두 번째는 강의실 내 다양성으로 학습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는 다양성 경험은 의도적인 다른 관점의 경험으로 학생의 비판적이고 통합적인 사고 형성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무 형식적 상호관계는 강의실 이외의 활동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과 관계를 맺으며 학생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됨을 의미한다.

해외 선행연구에서 다양성이 주는 교육적 효과가 여러 학자에 의하여 입증되었는데, 다음 <표 II-1>에서 정리해보았다. 학생 구성의 다양성 확보는 학습과 교육의 효과가 증폭되며, 복합적 사고와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많았다. 또한, 비판적 사고, 시민의식, 독해 능력 태도, 민주적 행동의식 등이 길러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lt;표 II-1&gt; 학생 구성의 다양성이 주는 교육적 효과(해외 선행연구)

주장하는 학자	다양성이 주는 효과
Chang(2002), Gurin et al.(2002), Milem, Chang & Antonio(2005), Jayakumar(2008)	학습과 교육의 효과가 증폭
Antonio et al.(2004), Austin(1993a, 1994b) Hurtado(2001), Gurin et al.(2002)	복합적 사고와 인지적 발달
Antonio et al.(2004), Pascarella et al.(2014)	비판적 사고
Gurin et al.(2002), Hurtado(2001)	시민의식
Loes, Salisbury & Pascarella(2013)	독해 능력 태도
Chang et al.(2004)	민주적 행동 의식
Hu & Kuh(2003)	개인적인 성장

※ 출처: 이병식, 이인서(2019)에서 국외 선행연구 다양성의 효과를 표로 재구성

대학 시절은 개인의 정체성과 세계관이 확립되는 시기이므로(Erickson, 1956; 김동일, 안예지, 금창민, 임희진, 곽다운, 2018 재인용), 대학 생활에서 다양성 경험은 개인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김동일 외, 2018). 최근 국내에서도 대학의 다양성 구성이 주는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주이(2018)는 대학에서 다양한 학생 구성이 재학생의 고차원 학습과 반성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6 학부 교육 실태조사’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106개 4년제 대학생 67,978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대학 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은 고차원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대학의 학생 구성이 다양할수록 재학생의 반성적 학습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적 다양성은 고차원 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인적 구성이 다양할수록 새로운 상황의 경험으로 고차원 학습을 할 기회가 많아지고, 기존과 새로운 것의 정보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반성적 학습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영 외(2022)는 대학의 인적 다양성과 인식이 학생 구성원의 다양성 수용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4년제 대학생 3,998명의 설문 응답을 활용하여 다층 분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대학 내에서 학생회, 동아리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서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다양성 수용도와 조직 자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밝혀냈다. 즉,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과 교류하거나 다양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참

여 경향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개인적인 만족감은 조직 수준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집단에서 다양한 경험은 학습 효과 증가, 복합적 사고와 인지적 발달, 비판적 사고발달 등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대학 내 구성원을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로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대학 내 다양한 학생 구성으로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함으로써 학습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 3. 대학과 학과 선택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대학의 수가 많지 않던 과거와 달리 전국적으로 많아진 대학의 수로 학생들은 대학 선택 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진학하고 있다. 과거 학생들은 주로 지리적 요인, 성적을 중심으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수시모집 6회, 정시모집 3회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대학의 다양한 전형들이 생겨남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과 학과 선택권이 다양해졌다(조승제, 2010). 손준중(2002)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수 증가로 대학별 신입생 모집 전략이 양극화됨에 따라 성적이 상위권 또는 수도권 대학은 우수한 학생선발을 위한 능력에 따른 선발이, 중하위권 성적이거나, 지방대학은 충원을 위한 개방 입학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대학별 신입생 모집 전략은 다르지만, 대학을 유지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학생들의 대학과 학과 선택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선택요인 연구는 대학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반대학 대학생의 주요한 대학 선택요인은 전공, 취업률, 성적이었으며, 선생님의 권유로 대학을 선택하였다. 전문대학은 취업률, 사이버대학은 교육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대학 선택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표는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대학 선택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대상	학자(연도)	대학선택요인	유의미한 타자	비고
일반 대학생	하봉준(2000)	전공>성적>수능점수>취업	본인>선생님>부모	지방*
	임동현(2009)	전공>수능성적>통학거리,교통	본인>선생님>부모,친척	지방
	박종무 외(2004)	취업률>등록금>사회적 평판	본인>가족,친지>선생님	지방

대상	학자(연도)	대학선택요인	유의미한 타자	비고
	김태선 외(2022)	취업률>지리적 거리>캠퍼스	선생님>친구>대학교수	지방*
	손준중(2002)	수능성적>취업,평판>위치,시설	선생님>친구>권고	지방*
	최수영(2007)	성적>자기소신>사회적평판	선생님>가족>선배	지방
	김경은(2016)	위치>합격가능성>타대학 불합격	선생님>가족,친구,친척	지방
전문 대학생	손명숙(2012)	취업률>장학금>학생복지> 교육질적수준	본인>가족>선생님	지방*
	김경은(2016)	취업률>주위권유>위치	가족,친구,친척>선생님	지방
사이버 대학생	권혜령(2022)	등록금,장학>교육질적수준> 취업,인지도,평가	-	지방
일반고 3학년	신현식(2013)	직업관련 자격증>대학생활> 고졸취업의 어려움	-	지방

\*설립 구분이 사립인 대학교

국내의 학과 선택요인 연구는 특정 학과와 계열의 학과 선택요인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예체능·보건·항공 서비스학과 학생들의 학과선택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윤수경 외(2015)의 연구에서 예체능계열 진학자들이 다른 계열 진학자보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참조해 보았을 때, 학과특성이 뚜렷하거나 본인이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높은 계열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과선택의 주요한 요인은 적성과 흥미였으며, 보건계열은 취업률, 항공 서비스계열은 전공의 인기도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과선택의 유의미한 타자로 본인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주요한 학과 선택요인이 적성과 흥미임을 고려하여 볼 때 학생 개인의 선호도와 의견이 학과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열별 대학생의 학과 선택요인 선행연구를 정리한 표는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 계열별 대학생들의 학과 선택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계열	학자(연도)	학과선택요인	영향력 있는 매체(타자)	
경찰	박상진, 이재영(2011)	적성,능력>직업>부모님 의견	TV,인터넷>가족,친지>학과책자	
사회복지	김수영(2008)	적성>취업>부모님,주위권유	본인>부모>친구	
	이선영(2009)	적성·흥미>4가지 모두>접수	본인>부모>감독,코치	
예 체 능	체육	이중희(2013)	적성·흥미>4가지 모두> 학과인기,취업전망	취업 스트레스
		홍창기(2019)	적성·흥미>4가지 모두>접수	-
	음악	추상희(2020)	흥미·재미>연주가 좋아서> 단원으로 연주가 좋아서	-
		정환호, 최진호(2014)	흥미>재능>취업보장	-
항공	손승희 외(2013)	성격,적성>사회적	-	

계열	학자(연도)	학과선택요인	영향력 있는 매체(타자)
		인식>대학조건	
서비스	양정미(2019)	학과유망>신체조건>친구권유	박람회>포털 사이트
	이진희(2022)	전공인기>재능>사회적 인식	-
보건	김진수, 임근옥(2006)	취업률>부모, 선배 권유>인터넷	모집요강>선배, 교사>치위생사
	유지수(2009)	취업률>발전가능성>직업	-
	여진동 외(2012)	취업률>장래성>부모님 권유	부모, 친척>치위생사>모집요강
	장계원 외(2013)	취업률>주위권유>적성, 성격	-
	이미림, 이효철(2018)	취업률>적성>기타	본인>부모>선생님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생의 대학진학 시 개인과 사회적 영역의 다양하고 복합적 요인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 선택요인은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대상에 따라 차이점이 있었지만 주로 학생들은 원하는 전공, 취업률, 성적을 고려하여 대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선택요인도 마찬가지로 학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른 점도 있었지만 주된 요인은 흥미와 적성, 취업률이였다. 특히, 학과선택은 대학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 흥미와 적성에 따라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대학 생활 만족도 및 관련 전공과 진로가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 선택요인 연구 대상이 지방대학, 특히 지방사립대학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지방대학이 처한 어려움의 현실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의 학과선택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C대학은 지역 대학의 특성상 근처 지역의 학생들이 주로 입학하고 있지만 몇몇 학과에서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 학생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의 학과선택 이유와 개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역적으로 유사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지방대학의 인적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구성의 다양성 확보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와 신입생 확보 노력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의 학과선택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

C대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립 77주년의 지방 C대학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립종합대학으로 13개 단과대학 86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정보공시에 의하면 지방 C대학의 입학정원은 4,385명이며, 신입생 충원율은 99.6%이다. C대학은 재학생 18,341명, 전임교원 785명으로 구성된 호남권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에서도 큰 규모의 대학이다. C대학은 지리적 특성상 광주, 전남, 전북(이하 호남권)의 학생이 주로 지원하여 등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 C대학의 지역별 지원·등록 비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에서 평균 81.7%가 지원하였으며, 등록은 지원보다 더 높은 89.1%의 학생이 등록하였다. 호남권이 아닌 타 지역에서 약 18.3%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은 지원보다 더 낮은 비율인 10.9%이었다. 호남권의 높은 진학률에도 호남권이 아닌 타 지역에서 특정 학과에 학생들이 꾸준히 진학하고 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꾸준히 입학하는 학과의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이 출신 지역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 C대학의 학과 선택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타 지역 출신 학생이 꾸준히 입학하는 학과 선별을 위하여 전체 학과에서 연도별(2020~2022), 모집시기별(수시, 정시) 타 지역 출신 학생의 등록 비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수시모집은 평균 약 8%, 정시모집은 약 17% 정도 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학과 선별을 위해 C대학의 전체 86개 학과 중 타 지역에서 입학한 신입생 비율이 연도별, 모집시기별로 평균 이상인 학과를 추출해 보았다. 2020학년도 수시모집은 타 지역 출신 신입생 비율이 8.2% 이상, 정시모집은 16.7% 이상인 학과를 추출하였다. 2021학년도는 타 지역 출신 신입생 비율이 수시모집은 7.9% 이상, 정시모집은 18.3% 이상인 학과를, 2022학년도는 수시모집 8.2% 이상, 정시모집 17.1% 이상인 학과를 추출하였다.

이후 타 지역에서 입학한 신입생이 연도별, 모집 시기별로 평균비율 이상인 학과를 중 3개년간 모집 시기별로 중복된 학과를 추출해 본 결과 수시모집은 16개, 정시모집은 9개로 총 25개 학과였다. 그 중 수시와 정시모집에 중복된 6개 학과인 태권도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문예창작학과, 원자력공학과, 음악교육과를 중복 횟수를 정리한 결과 19개가 학과가 연구 대상으로 표집되었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3년간 모집시기별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이 평균 비율 이상인 학과

학과	계열	수시모집			정시모집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타 지역 출신 재학생 평균비율(%)		8.2	7.9	8.2	16.7	18.3	17.1
경찰행정학과	인문	16.7	10.8	15.6			
일본어과	인문	13.9	14.7	11.4			
군사학과(남)	인문	24.0	16.0	16.0			
원자력공학과	자연	20.6	28.6	23.1	37.5	28.6	25.0
융접·접합과학공학과	자연	26.3	34.8	25.0			
음악교육과	사범	12.5	45.5	33.3	16.7	25.0	50.0
교육학과	사범	8.3	16.7	23.1			
물리교육과	사범				50.0	41.7	20.0
화학교육과	사범	25.0	38.5	33.3			
수학교육과	사범	21.4	20.0	25.0			
생물교육과	사범	38.5	25.0	33.3			
지구과학교육과	사범	28.6	64.3	46.2			
특수교육과	사범				16.6	27.3	25.0
문예창작학과	예체능	24.0	44.4	44.4	50.0	100	76.9
태권도학과	예체능	61.5	58.3	56.3	25.0	50.0	41.7
체육학과	예체능	43.8	50.0	41.1			
스포츠산업학과	예체능				28.6	25.0	33.3
의예과	의학	41.4	17.4	32.1	50.6	70.2	62.5
치의예과	의학	36.4	37.5	30.3	44.7	72.7	79.2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의 학과선택 이유 분석을 위하여 표집된 19개 학과 79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지방 C대학 19개 학과 타 지역 출신 재학생 793명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18일~12월 2일까지 2주간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는 전체 793명 중 59.6%인 469명이었다. 설문대상자와 응답인원 분포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은 설문대상자 58명(7.1%) 중 51명(10.9%)이, 자연공학계열은 설문대상자 52명(6.6%) 중 47명(10.0%)이 응답하였다. 사범계열은 134명(16.9%) 중 102명(21.7%)이, 예체능계열은 236명(29.8%) 중 119명(25.4%)이 응답하였다. 의학계열은 313명(39.5%) 중 150명(32%)이 응답했으며, 그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계열별 연구대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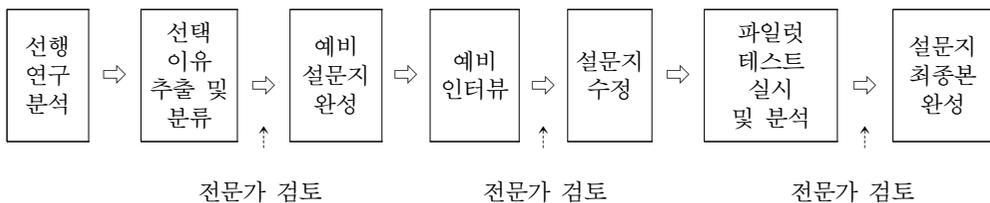
계열	학과	대상자(%)	응답자(%)
인문사회	군사학과(남), 경찰행정학과, 일본어과	58(7.1)	51명(10.9)
자연공학	원자력공학과, 융접·접합과학공학과	52(6.6)	47명(10.0)
사범	음악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생물교육과, 물리교육과, 수학	134(16.9)	102명(21.7)

계열	학과	대상자(%)	응답자(%)
	교육과, 화학교육과, 특수교육과, 교육학과		
예체능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문예창작학과, 스포츠산업학과	236명(29.8)	119명(25.4)
의학	의예과, 치의예과	313명(39.5)	150명(32.0)
	합계	793명(100)	469명(100)

##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지방 C대학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의 학과선택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가 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선행연구자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총 366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문항을 지도교수와 검토하여 본 연구 문제와의 적합성, 문항 간 중복·유사성을 고려하여 2022년 10월 예비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이후 적합한 문항 선별을 위해 연구 대상 타 지역 출신 재학생 19명과 예비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도교수와 C대학 입학사정관 2명과 예비 설문지를 검토하였다.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은 주로 학과의 희소성을 고려하였으며, 졸업 후 취업과 대학원 진학 시 희망지역에 계열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해당 학과의 전국적 희소성과 졸업 후 취업 또는 진학희망 지역에 관한 내용을 학과특성 문항에 추가하였다. 수정된 설문지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2022년 11월 1일~3일까지 연구 대상 학과 타 지역 출신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지도교수와 함께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검토하여 설문지에서 가장 중요한 학과특성을 맨 처음으로 위치하고, 응답에 의미가 없는 질문은 삭제하여 문항의 수를 적정화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나 예비 인터뷰에서 확인하지 못한 학과선택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과선택 이유에 관한 개방형 질문 1문항을 추가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 III-3>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III-3> 설문지 구성 절차



설문지는 학과특성, 대학특성, 개인 특성 3개의 영역으로 총 34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제1영역에서는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이 지방 C대학 학과선택 시 고려했던 학과특성을 위주로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영역은 지방 C대학의 학과선택 시 고려한 대학 특성을 위주로 9문항을 구성하였다. 제3영역은 개인의 특성에 관한 사항으로 6개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설문지 문항 내용과 출처는 다음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설문지 문항 내용과 출처

문항내용	출처
학과특성 (17문항) - Likert 5점 척도 (전혀 아니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학과 사회적 평판	손명숙(2012), 신현식(2013), 권은진(2015), 정지영, 장태선(2020), 권혜령(2022), 김태선 외(2022)
학과 전국적 희소성	예비 인터뷰 결과 반영
학과 교수의 명성	김경은(2016), 정지영, 장태선(2020), 권혜령(2022)
학과 전공프로그램	정지영, 장태선(2020), 권혜령(2022)
학과 교수와 제자관계	정지영, 장태선(2020), 권혜령(2022)
학과 입학전형, 커트라인	신현식(2013), 권은진(2015), 김경은(2016), 홍창기(2019)
학과 졸업생의 사회적 기여도	최수영(2007)
학과 취업률	김경은(2016), 정지영, 장태선(2020), 권혜령(2022), 김태선 외(2022)
학과 자격증 취득	권은진(2015), 권혜령(2022)
학과 오프라인 홍보물	신현식(2013), 권은진(2015), 김경은(2016), 임재식(2020), 정지영, 장태선(2020)
학과 온라인 홍보물	정지영, 장태선(2020)
학과 교육청 프로그램	신현식(2013), 김경은(2016), 양정미(2019)
학과 대학, 고교 학과 체험	신현식(2013), 김경은(2016), 양정미(2019)
학과 가족의 추천과 지지	손명숙(2012), 신현식(2013), 김경은(2016), 임재식(2020), 정지영, 장태선(2020), 권혜령(2022), 김태선 외(2022)
학과 지인의 진학·추천	김경은(2016), 홍창기(2019), 임재식(2020), 권혜령(2022), 김태선 외(2022)
학과 고3 담임 추천	김경은(2016), 임재식(2020), 정지영, 장태선(2020), 김태선 외(2022)
학과 진로, 진학 부장추천	김경은(2016), 임재식(2020), 정지영, 장태선(2020), 김태선 외(2022)
대학특성(9문항) - Likert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대학의 사회적 평판	임재식(2020), 정지영, 장태선(2020), 권혜령(2022), 김태선 외(2022)
대학 캠퍼스 규모	김태선 외(2022)
대학의 깊은 전통	김경은(2016), 정지영, 장태선(2020)
대학 등록금	손명숙(2012), 임재식(2020), 권혜령(2022), 김태선 외(2022)
대학의 장학금 혜택	김경은(2016), 정지영, 장태선(2020), 임재식(2020), 권혜령(2022), 김태선 외(2022)
대학의 위치	손명숙(2012), 김경은(2016), 정지영, 장태선(2020), 임재식(2020), 권혜령(2022)
대학의 기숙사 시설	임재식(2020), 정지영, 장태선(2020)
대학 학사제도, 프로그램	김경은(2016), 정지영, 장태선(2020)
대학의 인프라	임재식(2020), 정지영, 장태선(2020), 권혜령(2022)
개인의 배경적 특성(6문항) - 명목척도	
계열	신현식(2013), 김경은(2016), 홍창기(2019), 김태선 외(2022)
성별	김경은(2016), 공희정, 박경현(2020), 홍창기(2019), 권혜령(2022), 김태선 외(2022)
출신 고교 소재지	손명숙(2012), 김태선 외(2022), 공희정, 박경현(2020), 김태선 외(2022)

문항내용	출처
학과특성 (17문항) - Likert 5점 척도 (전혀 아니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취업, 대학원 진학희망 지역	신현식(2013), 예비 인터뷰 결과 반영
지방C대학, 학과결정시점	신현식(2013), 김경은(2016), 김태선 외(2022)
부모의 월평균 소득	권은진(2015), 양정미(2019), 임재식(2020), 공희정, 박경현(2020), 권혜령(2022)

###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지방 C대학의 최근 3개년 타 지역 입학생 비율이 평균 이상인 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수집된 469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SPSS 2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과선택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 이후 학과선택 이유에 따라 타 지역 출신 재학생들의 계열별 차이 및 평균 비교를 위하여 t 검증을 시행하였고, 세 개 이상 집단의 평균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 test 분석을 활용하여 사후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계열별로 학과를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를 탐색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석결과를 선택이유와 계열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지방 C대학을 선택한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은 누구인가

호남지역 출신 학생이 평균 90% 이상인 지방 C대학에서 타 지역 출신 재학생들을 추출하여 이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 C대학에 재학 중인 타 지역 출신 학생은 남학생(63.3%)이 여학생(36.7%)보다 많았다. 이는 계열별로도 비슷하게 경향을 보였는데, 의학계열부터 인문사회계열에 이르기까지 타 지역 출신 남학생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출신고교 소재지를 살펴보았을 때, 특별시 24.1%, 그리고 광역시 20.7%로 거의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을 입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4개 시도광역시 소재 고교 출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 C대학을 선택한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지방 C대학을 선택한 타 지역 재학생들의 가정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 월평균 소득수준을 분석한 결과, 월 400~6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빈도(26.0%)를 보이긴 했지만, 월 1,000만원 이상이 18.9%, 월 200~400만원 미만도 19.2%인 것을 나타나 타 지역 재학생들의 부모 소득수준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계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사정이 달랐다. 의학계열 부모 월 소득 평균 1,000만원 이상이 36.7%로 가장 높아 다른 계열(인문사회계열은 0%, 자연공학 7.1%, 사범계열 15.6%, 예체능계열 8.2%)과 차이가 있었다( $p < 0.001$ ). 이와 같은 결과는 의학계열을 진학한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의 부모 소득수준이 대체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 C대학을 선택한 타 지역 재학생들의 입학전형을 살펴보았을 때, 수시모집 56.3%, 정시모집 43.7%로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계열별로 유사해서 인문사회계열 68.6%, 자연공학계열 59.6%, 사범계열 66.7%, 예체능계열 73.1%의 타 지역 출신 재학생들이 수시모집으로 지방 C대학을 선택하였다. 반면, 의학계열은 이와는 정반대로 69.3%의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정시모집으로 지방 C대학을 선택하였고, 30.7%만이 수시로 입학하였다. 이와 함께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의 특정학과를 선택한 시점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원서접수시(35.2%)와 고3(33.9%)때 지방 C대학 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계열별로도 비슷하였지만, 흥미롭게도 인문사회계열(52.9%)과 사범계열(43.1%), 그리고 예체능계열(45.4%)은 고3 때 지방 C대학의 학과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반면, 자연공학계열(38.3%)과 의학계열(59.3%)은 원서접수 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끝으로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호남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졸업 후 진로 희망지역을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51.1%, 본인 출신 지역이 42.6%에 달했고, 호남지역은 6.3%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전 계열에 걸쳐 동일하여 지방 C대학을 선택한 타 지역 학생들은 졸업 후 대체로 수도권과 본인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IV-1>와 같다.

<표 IV-1> 계열별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기초통계 결과

(단위: 명, %)

항목	개인 특성	인문사회	자연공학	사범	예체능	의학	합계
성별	남자	28(54.9)	32(68.1)	62(60.8)	76(63.9)	99(66.0)	297(63.3)
	여자	23(45.1)	15(31.9)	40(39.2)	43(36.1)	51(34.0)	172(36.7)

항목	개인 특성	인문사회	자연공학	사범	예체능	의학	합계
	소계	51(100)	47(100)	102(100)	119(100)	150(100)	469(100)
출신 고교	특별시	14(27.5)	6(12.8)	12(11.8)	15(12.6)	66(44.0)	113(24.1)
	광역시	12(23.5)	12(25.9)	19(18.6)	25(21.0)	29(19.3)	97(20.7)
	시도	25(49.0)	29(61.7)	71(69.6)	79(66.4)	55(36.7)	259(55.2)
	소계	51(100)	47(100)	102(100)	119(100)	150(100)	469(100)
부모 월평균 소득 수준	월 200만원 미만	1(3.3)	0(0.0)	6(9.4)	7(11.5)	3(3.1)	17(6.0)
	월 200~400만원 미만	7(3.3)	9(32.1)	11(17.2)	19(31.1)	8(8.2)	54(19.2)
	월 400~600만원 미만	14(46.7)	7(25.0)	19(29.7)	15(24.6)	18(18.4)	73(26.0)
	월 600~800만원 미만	7(23.3)	6(21.4)	9(14.1)	11(18.0)	16(16.3)	49(17.4)
	월 800~1,000만원 미만	1(3.3)	4(14.3)	9(14.1)	4(6.6)	17(17.3)	35(12.5)
	월 1,000만원 이상	0(0.0)	2(7.1)	10(15.6)	5(8.2)	36(36.7)	53(18.9)
	소계	30(100)	28(100)	64(100)	61(100)	98(100)	281(100)
입학 전형	수시모집	35(68.6)	28(59.6)	68(66.7)	87(73.1)	46(30.7)	264(56.3)
	정시모집	16(31.4)	19(40.4)	34(33.3)	32(26.9)	104(69.3)	205(43.7)
	소계	51(100)	47(100)	102(100)	119(100)	150(100)	469(100)
학과 결정 시점	중학교 시절	2(3.9)	2(4.3)	8(7.8)	9(7.6)	10(6.7)	31(6.6)
	고3 이전	6(11.8)	9(19.1)	16(15.7)	16(13.4)	13(8.7)	60(12.8)
	고3	27(52.9)	11(23.4)	44(43.1)	54(45.4)	23(15.3)	159(33.9)
	원서접수 시	12(23.5)	18(38.3)	18(17.6)	28(23.5)	89(59.3)	165(35.2)
	대학 등록 시	4(7.8)	7(14.9)	16(15.7)	12(10.1)	15(10.0)	54(11.5)
	소계	51(100)	47(100)	102(100)	119(100)	150(100)	469(100)
졸업 후 진로	호남권	2(4.9)	6(22.2)	4(4.6)	7(7.8)	5(3.8)	24(6.3)
	수도권	21(51.2)	11(40.7)	28(32.2)	53(58.9)	80(60.2)	193(51.1)
희망 지역	본인 출신 지역	18(43.9)	10(37.0)	55(63.2)	30(33.3)	48(36.1)	161(42.6)
	소계	41(100)	27(100)	87(100)	90(100)	133(100)	378(100)

## 2. 타 지역 출신 학생은 왜 지방 C대학의 학과를 선택하였나

다음으로 타 지역 출신 재학생들이 지방 C대학의 특정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학과선택 이유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개방형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타 지역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의 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문 문항은 1) 학과 특성 2) 대학특성 3) 영향을 미친 매체 4) 유의미한 타자로 구성하였고, 이를 계열별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지방 C대학 학과 선택이유를 총 9개의 학과특성 문항(사회적 평판, 전국적 희소성, 교수 명성, 전공 프로그램, 교수-제자 관계, 입학전형, 사회적 기여도, 취업률, 자격증 취득)으로 구성하였다. 학과특성과 관련한 문항 중 학과 입학전형과 커트라인(3.70, 5점 만점), 그리고 전국적 희소성(3.66)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과의 사회적 평판(3.26), 자격증 취득(3.26), 취

업률(3.13)이 보통 수준인 3점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계열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냈는데, 인문사회계열은 학과 입학전형과 커트라인(3.65), 전국적 희소성(3.63), 취업률(3.27), 사회적 평판(3.20)이 보통 수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자격증 취득(2.73)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냈다. 자연공학계열은 전국적 희소성(3.57), 학과 입학전형 및 커트라인(3.23), 자격증 취득(3.17)이 보통 수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다른 계열과 달리 취업률(2.85)이나 사회적 평판(2.17)의 점수가 낮았다. 사범계열은 전국적 희소성(3.89), 학과 입학전형과 커트라인(3.57) 이외에 자격증 취득(3.33)이 보통 수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학과특성이 많지 않았는데, 학과의 입학전형과 커트라인(3.33), 교수 명성(3.14), 전공 프로그램(3.08)이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의학계열은 다른 계열에 비해서 학과의 입학전형과 커트라인(4.25), 사회적 평판(4.21), 전국적 희소성(4.11)이 5점 만점 중 4점을 넘는 점수로 상당히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취업률(3.93)도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을 선택한 이유를 대학특성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총 9개 문항(사회적 평판, 캠퍼스 규모, 대학전통, 등록금, 장학금, 위치, 기숙사 시설, 학사제도 등, 인프라)으로 구성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은 보통 수준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의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캠퍼스 규모(3.27), 대학 전통(3.18), 사회적 평판(3.08), 장학금(3.00) 순으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 C대학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는 모두 보통 수준인 3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을 선택한 이유를 ‘영향을 미친 매체’와 ‘유의미한 타자’로 나눠서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 4개의 문항(영향을 미친 매체: 학과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홍보물, 교육청 프로그램, 전공체험/유의미한 타자: 가족추천, 지인추천, 고3 담임추천, 진로·진학부장추천)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흥미롭게도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매체들에 대한 응답 수준은 모두 보통(3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타자도 가족 추천(3.09)만이 보통 수준인 3점보다 다소 상회한 점수에 불과하였다. 계열별로 차이가 있긴 하였지만, 의학계열 학생들은 가족추천(3.47)과 지인 추천(3.41)이 평균값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lt;표 IV-2&gt;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의 학과선택 이유에 관한 기초통계

(5점 척도 1-5점)

항목	학과 선택 이유	인문사회 (n=51)	자연공학 (n=47)	사범 (n=102)	예체능 (n=119)	의학 (n=150)	합계 (n=469)
학과 특성	학과 사회적 평판	3.20(1.25)	2.17(1.15)	3.06(1.21)	2.69(1.21)	4.21(1.13)	3.26(1.37)
	학과 전국적 희소성	3.63(1.26)	3.57(1.32)	3.89(1.25)	2.94(1.31)	4.11(1.21)	3.66(1.34)
	학과 교수명성	2.96(1.47)	2.17(1.09)	2.59(1.19)	3.14(1.38)	2.17(1.09)	2.59(1.29)
	학과 전공프로그램	2.88(1.26)	2.26(0.99)	3.05(1.34)	3.08(1.22)	2.75(1.41)	2.86(1.31)
	학과 교수제자관계	2.78(1.24)	1.77(0.98)	2.57(1.26)	2.74(1.22)	2.19(1.12)	2.43(1.22)
	학과 입학전형, 커트라인	3.65(0.98)	3.23(1.27)	3.57(1.17)	3.33(1.14)	4.25(1.02)	3.70(1.17)
	학과 졸업생사회적기여도	3.12(1.32)	2.09(0.97)	2.75(1.27)	2.77(1.21)	3.14(1.37)	2.85(1.30)
	학과 취업률	3.27(1.39)	2.85(1.29)	2.68(1.27)	2.55(1.18)	3.93(1.28)	3.13(1.39)
대학 특성	학과 자격증 취득	2.73(1.10)	3.17(1.27)	3.33(1.37)	2.69(1.19)	3.88(1.37)	3.26(1.37)
	대학 사회적 평판	3.08(1.28)	2.11(1.18)	2.70(1.26)	2.75(1.18)	2.81(1.37)	2.73(1.29)
	대학 캠퍼스 규모	3.27(1.13)	2.38(1.28)	2.99(1.29)	2.86(1.24)	2.68(1.31)	2.83(1.28)
	대학 전통	3.18(1.28)	2.28(1.36)	2.73(1.30)	2.79(1.24)	2.70(1.36)	2.74(1.32)
	대학 등록금	2.55(1.22)	1.70(0.88)	2.20(1.14)	2.61(1.27)	1.96(1.03)	2.21(1.17)
	대학 장학금	3.00(1.37)	1.66(0.92)	2.38(1.22)	3.00(1.35)	1.93(1.09)	2.39(1.30)
	대학 위치	2.27(1.25)	2.11(1.22)	2.61(1.34)	2.49(1.28)	2.37(1.30)	2.42(1.30)
	대학 기숙사 시설	2.47(1.32)	2.26(1.33)	2.51(1.27)	2.50(1.25)	1.96(1.09)	2.30(1.24)
영향 매체	대학 학사 제도등	2.73(1.27)	2.30(1.20)	2.49(1.20)	2.52(1.13)	2.23(1.19)	2.42(1.20)
	대학 인프라	2.59(1.25)	1.96(1.22)	2.42(1.25)	2.50(1.21)	2.06(1.03)	2.30(1.19)
	학과 오프라인 홍보물	2.45(1.12)	1.79(0.86)	2.22(1.22)	2.50(1.20)	1.99(1.02)	2.20(1.13)
	학과 온라인 홍보물	2.49(1.24)	1.81(0.83)	2.33(1.27)	2.55(1.20)	1.96(0.98)	2.23(1.15)
유의 미한 타자	학과 교육청 프로그램	2.49(1.22)	1.85(0.93)	2.68(1.38)	2.41(1.18)	1.95(1.03)	2.28(1.20)
	학과 전공체험	2.47(1.22)	2.17(1.37)	2.43(1.33)	2.46(1.13)	2.01(1.13)	2.28(1.22)
유의 미한 타자	가족 추천	3.14(1.20)	3.13(1.31)	2.81(1.44)	2.81(1.19)	3.47(1.43)	3.09(1.37)
	지인 추천	2.75(1.23)	1.96(1.06)	2.66(1.43)	3.19(1.27)	3.41(1.39)	2.97(1.39)
	고3 담임추천	2.33(1.26)	1.94(0.87)	2.81(1.36)	2.34(1.24)	2.55(1.42)	2.47(1.32)
	진로, 진학부장 추천	2.33(1.23)	1.66(0.87)	2.43(1.25)	2.22(1.28)	2.34(1.32)	2.26(1.26)

다음으로 타지역 학생이 지방 C대학을 선택한 이유들이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앞서 살펴본 결과에 기반하여 학과특성, 대학특성, 유의미한 타자 중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3점 이상) 문항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고,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았다.

첫째, 학과 특성 중 하나인 학과의 사회적 평판은 타 지역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을 선택할 때, 고려한 유의미한 특성으로서 계열별로 차이가 있었다( $F=41.749$ ,  $p<.0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학과(4.21), 사범계열(3.06), 예

체능계열(2.69), 자연공학계열(2.17) 순이었는데 사후검정결과, 의학계열은 다른 계열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학과의 전국적 희소성 또한 계열별 차이가 있었다( $F=15.460$ ,  $p<.001$ ). 구체적으로, 의학계열(4.11), 사범계열(3.89), 인문사회계열(3.63), 자연공학계(3.57), 예체능계열(2.94) 순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정결과 의학계열과 사범계열이 다른 계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학과의 입학전형과 커트라인( $F=15.228$ ,  $p<.001$ ), 학과 취업률( $F=25.271$ ,  $p<.001$ ), 그리고 학과 자격증 취득( $F=16.847$ ,  $p<.001$ ), 가족의 추천과 지지( $F=5.045$ ,  $p<.001$ ) 모두 계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정결과 모두 의학계열이 다른 계열과 비교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의학계열 평균값: 4.25, 3.93, 3.99, 3.47).

다음으로 타 지역 학생들이 지방 C대학 학과를 특별히 고려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개방형 응답을 실시하였다. 계열과 상관없이 보통(3점)이상 수준으로 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첫째 타 지역 학생들이 학과의 사회적 평판 때문에 학과를 선택한 경우, 학과 순위가 높다고 인식하거나(인문사회), 학과 평판이 유명하다고 인식하였고(자연공학), 호남권에서 학교 명성이 높아서(사범), 해당 학과가 서울 소재 대학에도 있지만 진학하기가 다소 어려운데 C대학 해당 학과가 유명하기 때문에(예체능), 이 지역권에서 영향력이 큰 대학의 학과이기 때문(의학)이라 응답하여, 지방소재의 C대학이지만 학과의 사회적 평판이 높은 경우에는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타 지역 학생들이 학과의 전국적 희소성 때문에 학과를 선택한 경우, 희망 진로와 맞는 학과가 수도권에 적게 분포하고(인문사회), 해당 전공이 일자리·급여 등 노력에 비례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C대학만 해당 학과가 존재하며(자연공학), 전국에 몇 없는 희소성이 강한 학과이기 때문에(사범), 전국적으로 몇 개 없고(예체능), 의대라는 학과가 워낙 희소(의학)하기 때문이라 응답하였으며, 전국적인 학과의 희소성이 타지역 학생들을 지방 C대학으로 유인할 수 있는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타지역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의 입학전형과 커트라인 때문에 학과를 선택한 경우, 입시 결과 등급대가 적절하여 성적에 맞추거나(인문사회),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수시 불합격이 되어 해당 학과를 선택(자연공학), 내신 성적에 가장 적합했고, 가고 싶은 학과였으며(사범), 전형 방법과 실기 점수

를 고려(예체능), 탐구영역 반영 개수와 입시결과(의학) 때문이라 응답하여, 대학의 전략적인 입학전략과 결과에 따라 타지역 학생들을 지방대학에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넷째, 타 지역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의 학과 취업률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 경우, 경찰이 꿈이며(인문사회), 다양한 직업군으로 인하여 취업 시 유리(자연공학), 높은 임용합격률(사범), 의사라는 직업의 안정성과 졸업 이후 진로의 명확성(의학)이라 응답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타 지역 학생들이 학과의 자격증 취득을 이유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 직업 군인 또는 장교임관이 목적(인문사회), 교원자격증(사범)과 체육 교직의 획득(예체능), 전문직의 안정성 때문에 지원(의학)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과의 취업률이 높고,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면 타 지역 출신학생들도 지방 C대학에 입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의 학과를 선택한 이유 중 가족의 추천과 지지인 경우를 살펴보면, 가족이 원자력 관련 분야에 종사하여 추천(자연공학)하였으며, 가족의 지지로 입학(의학)하였음을 응답하였다. 이는 학과선택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인 선생님의 추천으로 학과를 선택(손준중, 2002; 최수영, 2007; 김경은, 2016; 김태선 외, 2022) 했다는 내용과는 다소 상이하게 가족의 추천과 지지가 있는 경우에도 타지역 출신 학생들이 지방 C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IV-3>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이 지방 C대학 학과 선택 이유에 대한 개방형 응답결과

학과선택이유	타 지역 출신 학생의 개방형 응답 결과
학과 사회적 평판	“C대학의 학과 순위가 높아서 선택했습니다” -인문사회계열 A학생 “학과의 평판이 유명해서” -자연공학계열 A학생 “호남권에서 학교의 명성이 높아서” -사범계열 A학생 “해당 학과가 인서울 하기 어려운데 C대학도 해당 학과가 유명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됨” -예체능계열 A학생 “이 지역권에서 영향력이 큰 대학의 학과라서” -의학계열 A학생
학과 전국적 희소성	“희망진로와 맞는 학과가 수도권에 적게 분포하였기 때문” -인문사회계열 B 학생 “융접관련분야가 일자리, 급여 등이 노력에 비례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C대학교 밖에 융접학과가 없어서 선택하였습니다.” -자연공학계열 B학생 “희망분야였던 생물교육과는 과 특성상 전국에 몇 없는 희소성이 강한 학과

학과선택이유	타 지역 출신 학생의 개방형 응답 결과
	“이므로 타지에서 C대학까지 오는 것을 결정” - 사범계열 B학생 “전국적으로 몇 개 없어서 선택” -예체능계열 B학생 “의대라는 학과가 워낙 희소해서” -의학계열 B학생
학과 입학전형과 커트라인	“등급대가 적절해서 성적에 맞춰왔다.” -인문사회계열 C학생 “성적이 잘 만나와서 수시 불합격이 돼서” -자연공학계열 C학생 “내신 성적에 가장 적합했고, 내가 가고 싶은 과라서” -사범계열 C학생 “소수 전형의 방법과 실기접수에 맞는 학교와 학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예체능계열 C학생 “입시결과와 조선대 정시전형의 특이성(성적 반영시 과탐 1개 반영)이 학과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음.” -의학계열 C학생
학과 취업률	“경찰이 꿈이라서 선택했습니다 -인문사회계열 D학생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 취업시 좋을 것 같아서” -자연공학계열 D학생 “임용합격률이 높음” -사범계열 D학생 “의사라는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졸업 이후 진로가 명확한 점” -의학계열 D학생 ※예체능계열은 관련 특성과 관련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음.
학과 자격증 취득	“직업군인, 장교 임관을 위해” -인문사회계열 E학생 “대학 졸업 시 교원자격증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범계열 E학생 “체육교직을 따고 싶은 마음에 해당 학과 지원” -예체능계열 E학생 “전문직(의사)를 원했고, 전문직의 안정성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의학계열 E학생 ※자연공학계열은 관련 특성과 관련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음.
가족의 추천과 지지	“가족이 원자력 관련 일하고 계셔서 추천하였습니다.” -자연공학계열 G학생 “가족의 지지로 입학” -의학계열 G학생 ※인문사회, 사범대, 예체능계열은 관련 특성과 관련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음.

### 3. 논의

이 연구는 지역인재 유출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방대학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타 지역에서 지방 C대학의 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누구이고, 이들이 지방 C대학 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논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지방 C대학에 입학한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의 고교 출

신지는 14개 특별시 포함하여 광역시, 시도 등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모든 계열에서 동일한 양상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주로 주목해왔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학생 이동과는 달리,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지방 특히, 호남지역으로도 학생 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방대학이라고 할지라도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면,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지방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입장에서는 타 지역 출신 재학생들을 유인할 만한 특징이 있다면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최근 김태선 외(2022)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G대학의 경우, 신입생의 약 26.8%가 경남 및 경북을 제외한 타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정보를 얻었고, 학과의 취업률 때문에 해당 학과를 선택했다.

그런데,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의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학특성보다는 학과 특성이 더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지방 C대학을 선택한 이유로 제시한 대학특성 9개 문항(최소: 대학등록금 2.21점 ~ 최대: 대학캠퍼스 규모 2.83점)보다는 학과 특성 17개 문항(최소: 교수제자관계 2.43점 ~ 최대: 학과 입학전형과 커트라인 3.70점)에 대한 평균값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과의 입학전형과 커트라인, 학과의 전국적 희소성, 학과의 사회적 평판 및 자격증 취득, 그리고 취업률 등이 타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C대학을 선택한 이유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바 있는 학과 선택 요인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선행연구들에서는 흥미와 적성(이중희, 2013; 정환호 외, 2014; 홍창기, 2019; 추상희, 2020), 취업률(여진동 외, 2012; 장계원 외, 2013; 이미림 외, 2018) 등이 주요한 학과 선택 요인이었다. 최근에 수행된 김태선 외(2022)의 연구에서도 경북 구미시 G대학에 입학한 타 지역 학생들의 학과선택요인은 취업률, 캠퍼스로 나타났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학과의 전국적 희소성이나 사회적 평판, 그리고 학과의 입학전형이 지방 C대학에서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몇 개 없어서 선택”, “수도권에 적게 분포해서”, “C대학에만 해당 학과가 있어서 선택” 했다고 응답하면서, 학과 희소성을 학과선택 시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 C대학 타 지역 출신 학생들과의 예비 면담을

통해 학과의 전국적 희소성이 학과선택이유로 중요할 수 있다고 파악하여 설문 문항으로 포함하였고, 실제 학과 선택이유로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학과선택요인으로 전국적 희소성을 언급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지방 C대학의 경우 재학생이 약 2만명, 86개 학과의 규모 대형 대학이기 때문에 학과의 전국적 희소성이 높거나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학과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간주한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나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학과 취업률이나 성적, 자격증 취득 이외에도 학교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학과의 전국적 희소성, 사회적 평판, 입학전형 등도 충분히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둘째,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지방 C대학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계열별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로 구분하여 계열별로 학과선택 이유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학과의 사회적 평판, 전국적 희소성, 입학전형과 커트라인, 취업률, 자격증 등 모두 의학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학과선택 이유에 큰 차이가 있었다. 즉, 위에서 언급한 학과 특성들은 타 지역 출신 의학계열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학과 희소성은 사범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다른 계열에 비해 지방 C대학을 선택한 학과 특성 이유였다. 학생들이 응답한 개방형 응답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 C대학을 선택한 학과 특성에 대해 계열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연공학계열인 원자력공학과, 융합·접합학과공학과 타 지역 출신 재학생들은 자신이 최대한 매력적으로 느끼는 학과의 특징이 학과의 전국적인 희소성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실기와 입상실적 평가라는 지방 C대학의 전형특성이 학과를 선택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계열과 달리 예체능계열은 지인추천이나 학과 교수의 명성이 지방 C대학을 선택한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는데, “교수님들의 현재 업계에서의 명성이나 위치, 교수님의 작품 탐독을 통해 형성된 교수님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같이 해당 분야에서 교수의 명성이나 학과의 평판이 지방 C대학을 선택한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의 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통계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개방형 응답에서는 계열에 따라 선택이유로 응답한 학과 특성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학과선택에 영향을 미친 매체와 유의미한 타자였다. 예컨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학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원하게 되었다고 개방형 응답에서 답하였고, 사범계열의 경우 지방 C대학 출신 교사와 교생이 추천했거나 롤모델이었다고 답하였다. 즉,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은 주로 가족의 추천과 지지에 의해 C대학의 학과를 선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방 C대학 인문계열에서는 유튜브 영상 홍보 활동, 또는 사범계열의 경우 C대학 출신 교사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며 타 지역 출신이라도 지방 C대학을 선택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계열별로 학과 특성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예체능이나 보건, 항공승무원 분야에서 수행되었다(예: 손승희 외, 2013; 이중희, 2013; 장계원 외, 2013; 정환호, 최진호, 2014; 이미림, 이효철, 2018; 양정미, 2019; 홍창기, 2019; 추상희, 2020; 이진희, 2022). 선행연구 결과, 예체능은 흥미 위주, 보건계열은 취업률 등이 고려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같이 계열별로 학과 선택 이유가 차이가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셋째,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 14개 시도 출신의 학생들이 지방 C대학을 선택하였지만, 안타깝게도 C지역에 정주할 계획은 없었다. 이 연구결과, 지방 C대학의 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한 타 지역 출신 재학생들은 졸업 후 수도권 또는 본인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다. 수도권을 진로 희망 지역으로 응답한 학생(51.1%)이 가장 많았고, 본인 출신 지역(42.6%), 호남지역(6.3%) 순이었다. 즉, 수도권 출신이 아닌 타 지역 출신 학생들도 대학 졸업 후 수도권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이나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재학생이 졸업 후 호남권에 남아 있을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찬영, 조세형, 류재준(2016)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 졸업 이후 광주지역 청년층 인재유출의 원인으로 지방대학의 낮은 취업률, 대기업 취업 시 수도권 대학이 유리한 점,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 부족과 열악한 환경,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언급된 바 있다. 호남지역 출신 학생뿐만 아니라 타 지역 출신 학생들도 지방 C대학 학과의 여러 잇점 때문에 선택했지만, 수도권이 직장이나 주거환경 모두 낫다고 여겨 졸업 후에는 C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다. 결국, 지방 인재 유출은 단순히 지방대학의 경쟁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시장과 거주환경 등 전반적인 지역의 생태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V. 결론 및 제언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사회·환경적 변화에서 타 지역 출신 학생의 유입은 지방대학의 지원자 확대와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C대학의 학과를 선택한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은 누구이며, 이들은 왜 C대학의 학과를 선택하였는지 이유와 계열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C대학의 타 지역 학생 유치 전략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과 다양한 학생 구성으로 대학 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견해와는 달리 지방대학도 충분히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타 지역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학과를 유인할 수 있는 특성화가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제안해보자면, C대학의 타 지역 출신 학생 유입을 위하여 학과 또는 계열 특성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는 대학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정부에서도 지방대학의 특성개발을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방대학 지원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C대학은 13개 단과대학의 86개 모집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과는 고유의 학문적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C대학의 학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학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과평가 항목에 수요자 중심 학과특성 개발 및 강화라는 항목으로 학과특성 개발이 이루어진 학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학과들이 자구적으로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타 대학 학과와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입학까지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대학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넘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대학30,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대학지원사업을 통한 자율적인 특화 분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계열별로 타학생 유치 전략을 다르게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계열은 학과의 전국적 희소성, 취업률, 대학, 캠퍼스 규모 등을 고려하였는데, 경찰행정학과의 경찰 특채, 경찰 공무원 합격자 수, 경찰 임용을 위한 C대학만의 프로그램 및 대학 캠퍼스 안내로 학생들의 입학유도를 할 수 있다. 사범계열은 개방형 설문지에서 확인되었던 학과선택 이유인 교육학과의 도덕 윤리 연계 프로그램과 과학계열, 음악교육과 같은 다양한 과목의 교사를 양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사 임용을 위한 학과만의 특색있는 전공프로그램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변화된 교육과정 시행으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고교 현장 상황에서 C대학 사범대학이 다양한 과목군의 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을 홍보한다면 학생들에게 충분히 어필될 수 있다. 예체능계열도 문예창작학과의 교수진 명성, 체육학과의 교직 이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생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자연공학계열의 경우, 학과는 전국적으로 희소하나,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의 내신등급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은 학과의 희소성과 학과 자격증에 흥미를 느껴 C대학 학과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설명과 학과에 마련된 커리큘럼을 소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타 지역 학생들은 학과 선택 시 학과 홍보물에 대한 고려 수준이 낮고, 가족의 지지와 추천이 높았다. 타 지역에서 호남지역까지 먼 거리에서 오는 학생들은 단순히 홍보물로 설득되기에는 큰 모험이 될 수 있기에, 자신에게 가깝고 신뢰할 만한 부모나 지인의 설득이나 권유에서 의해서 학과를 선택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타 지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 홍보물의 제시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호남지역 외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단순히 홍보물만으로는 C대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예비 인터뷰에서 타 지역 학생의 학과선택 이유로 부모님 고향이거나 친인척이 광주지역에 있어서 선택했다는 답변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타 지역 출신 재학생 유입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과특성 안내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과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노출한다면 학부모의 관심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타 지역 출신의 다양한 학생 구성을 위한 대학 내 다양성 수용도 교육 및 타 지역 학생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신입생

충원만큼 재학생 유지는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적응하기란 본인이 살던 지역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은 대학 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수자를 위한 특수교육 대상자, 해외 유학생을 위한 부서가 존재하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유입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소개 지역에 대한 안내 및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힘들더라도 신입생 중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적응프로그램과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대학 내 다양성 수용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타 지역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유도하고 중도 탈락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 지역에 유입된 학생의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 경험은 또 다른 타 지역 학생들의 유입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범계열에 입학한 학생 중 고교교사의 출신대학으로 해당 교사의 추천으로 C대학 사범계열에 진학했다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이 다수 존재하였다. 타 지역 학생들이 졸업 후 호남권을 벗어나더라도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조직에 출신대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천함으로써 또 다른 타 지역 학생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청년들이 지방대학을 졸업 이후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교육적 잇점으로 타 지역 학생을 유치하였지만, 졸업 후에는 호남 지역에 정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 이는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이 졸업 후 호남권에 남아 있을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2023.11.02.)에 의하면 지역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가 대학 졸업 후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전략과 연계한 인력양성, 일자리 지원사업 등 지자체와 대학, 지역산업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해 교육,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지방소재 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지방의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RISE,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과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지방 C대학을 사례로 지방대학을 선택한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누구이고, 왜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과선택 이유의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지만, 내재된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타 지역 출신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시행해본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공희정, 박경현(2020).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 고등학생의 대학진학 동기: 부모 환경의 영향 및 대학 선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8(4), 119-150.
- 권은진(2015). 성격5요인, 대학전공선택요인 및 대학생활적응의 종단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569-594.
- 권혜령(2022). 사이버대학생의 대학선택 요인과 대학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2016)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 학생의 대학 선택요인과 만족도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 안예지, 금창민, 임희진, 곽다운(2018). 고등교육기관 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열린교육연구*, 26(2), 1-26.
- 김수영(2008).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와 진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춘(2000). 학교 교육과 다양성 추구. *교육과정연구*, 18(1), 45-61.
- 김진수, 임근옥(2006). 일부 치위생과 재학생의 학과선택 만족도 및 취업의식변화. *한국치위생학회지*, 6(2), 103-113.
- 김태선, 홍선연, 허화라, 박강우, 박진식, 이창수, 하중욱, 신화수(2022). 대학신입생의 대학 및 학과선택 요인과 만족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7(2), 203-212.

- 교육부(2021).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발표). 보도자료(2021.12.22.)
- 교육부(2021).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P.1~4. 보도자료(2021.5.20.)
- 교육부(2023).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보도자료(2023.11.2.)
- 대학교육연구소(2020).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대학교육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2021).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 대학교육연구원.
- 민영, 양운재, 윤태웅, 김지형(2022). 대학의 인적 다양성과 다양성 풍토 인식이 학생 구성원의 다양성 수용도와 조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사회연구, 15(1), 79-113.
- 박상진, 이재영(2011). 경찰학전공 선택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5(1), 59-86.
- 박성신, 김석순(2022). 수도권대학 진학 선호 요인 분석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방향 모색: 전북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4(1), 205-217.
- 박종무, 전채남, 권미옥(2004). 신입생의 대학선택 요인과 대학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 경영교육연구, 34, 373-399.
- 배경진(2022). 비수도권 대학의 현실: 비수도권 대학 위기의 원인과 해소방안. 안과 밖, 52, 244-268.
- 손명숙(2012). 전문대학생의 대학선택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 양정미, 최종률(2013). 항공서비스 전공학생의 학과선택 결정요인이 학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5(6), 387-405.
- 손준중(2002). 지방사립대학 신입생의 대학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 13(2), 49-73.
- 신현식(2013).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학과 및 전공 선택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기돈, 오정일(2010). 고등학생의 대학교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연구, 11(1), 199-210.
- 안영진(2004). 대학 신입생의 특성과 취학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3), 481-501.
- 양정미(2019). 의사결정나무분석에 의한 항공운항서비스학과 선택 결정요인 차이

- 연구. 관광경영연구, 91, 621-634.
- 여진동, 김혜숙, 고인호(2012). 방사선과 학생들의 학과선택 결정요인과 만족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1), 105-116.
- 유지수(2009). D대학 보건계열 학생들의 전공학과 선택 요인에 관한 조사. 대한 치과위생학회지, 11(1), 69-77.
- 윤수경, 한유경, 임소현, 김화영(2015). 대학 및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교육, 42(2), 87-107.
- 이기준(2019). 인구 지형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변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312호, 2019년 6월호
- 이미림, 이효철(2018). 보건계열 학생들의 학과 선택 동기와 만족도 조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2), 137-153.
- 이병식, 이인서(2019). 대학생 다문화 태도에 대한 다양성 경험과 대학의 구조적 다양성 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57(2), 197-225.
- 이선영(2009).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및 전공만족, 진로선택에 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서(2018). 대학생 다문화 태도에 대한 고등교육의 다양성 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이(2018). 대학에서 학생 구성의 다양성이 고차원 학습과 반성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중희(2013).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결정 요인 및 전공만족과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희(2022). 항공서비스학과 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찬영, 조세형, 류재준(2016). 광주지역 청년층 인재유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지역개발연구, 48(1), 117-142.
- 이효선(2014). 대학생의 다양성 수용도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효선, 이희수(2016). 대학생의 다양성 수용도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평생학습사회, 12(1), 277-305.
- 임동현(2009). 대학 및 학과 선택변인과 선택만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승달(2004). 지방대학육성과 청년실업문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도

- 시문제, 39(423), 13-29.
- 임재식(2020). 대학선택, 대학만족도 및 학업지속 의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계원, 이지영, 정미경(2013).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학과선택 동기 및 적응도. 한국치위생학회지, 13(2), 335-342.
- 정지영, 장태선(2020). 항공서비스관련전공 대학생의 대학선택속성에 대한 고찰 : IPA기법을 적용하여. 호텔경영학연구, 29(4), 331-346.
- 정하연(2018). 대학 팀 프로젝트 학습에서 다양성 수용도, 과업갈등과 팀 몰입 및 성취도의 관계에서 관계갈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환호, 최진호(201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교과과정 적합도 분석. 음악교육연구, 42(2), 161-183.
- 조승제(2010). 수요자중심 지역사회 대학생들의 학과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3(3), 111-151.
- 최수영(2007). 대학선택에 미치는 주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상희(2020). 관현악 전공생들의 전공선택요인 · 진로준비행동 · 진로결정수준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23). 2023년 6월 인구동향.
- 하봉준(2000). 대학선택의 기준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영산논총, 6, 259-278.
- 홍창기(2019).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 및 학과만족도에 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2021), 인구변동과 미래전망: 지방대학 분야.
- 부산일보(2023.8.7.). 고신대 임금 체불 사태, 지역 사립대 “남 일 아니다” .
- 중앙일보(2022.9.21.). 대입 수시 경쟁률, 수도권 14.3대 1, 비수도권 5.7대 1.







2023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지역, 국가와 고등교육 경쟁력:  
전망과 과제

---

발 행: 2023년 12월 2일

발행인: 이종재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주 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902호  
(마스터즈타워 빌딩)

E-mail: keas1967@daum.net

홈페이지: <http://www.keas1967.com>

인쇄처 가람문화사(02-873-2362)

---

<비매품>